

성경 공과

제4권

가정 예배 (For Home Worship)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다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4권

For Home Worship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4권 가정 예배를 위해, home worship 만을 모아 가지고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 가정 예배 (Home Worship)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못하거나, 또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감지한 부모들을 위한 설교 자료이므로 이 자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필요시 찬송 까지 곁들이면 가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성심어린 예배를 훌륭히 꾸려가리라 확신합니다.

성서는 구절이나 문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인 글자 의미 “예수의 겉옷”을 통해 전달되므로 성서를 읽는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지상의 모든 교과가 자기들에게 적합하도록 찢어 다시 꿰매 수도 있는 성서 지식입니다.(요한복음 19장 23-24절) 그러나 영적 의미는 “예수의 속옷”입니다. 이 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술 없이 통으로 짠 것”으로 인간의 거듭남을 위한 지식을 알려 줍니다. 가장 깊은 의미인 천적 의미는 주님 자신에 관한 사항들, 특히 주님께서 신성화 하신 과정의 설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한 것같이 여겨졌기 때문에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상응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

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성서의 합리적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제 4권 차례

* 이 책에 관하여

1. 창조(이렛 날)-----창세기 2장 1-7절---9
2. 카인과 아벨----창세기 4장 1-5절---13
3.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9절--- 18
4. 아브라함과 천사들---창세기 18장---21
5. 이삭과 아비말렉----창세기 26장 1-33절---27
6. 야곱의 귀향-----창세기 35장----33
7. 요셉의 아들들--창세기 48장, 50장 22-26절---38
8. 과월절-----출애굽기 12장---43
9.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출애굽기 17장--50
10. 금 송아지----출애굽기 32장 1-24절--54
11. 아론의 가지----민수기 17장 16-28절---59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여호수아 5장----63
13. 거룩한 땅의 분할--여호수아 18장 1-10절---68
14. 판관 삼손-----판관기 14장---72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사무엘상 8장---77
16. 아각 왕을 살려둔 사울--사무엘상 15장----82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사무엘하 12장 1-25절----88
18. 솔로몬의 최후--열왕기상 11장 1-13, 26-43절---93
19. 엘리사와 나아만--열왕기하 5장---98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열하24장,25:1-12;예야 21장--103
21. 말씀에 관한 시편----시편 119편----110
22. 벨사살 왕의 잔치-----다니엘 5장--126
23. 사자굴에서의 다니엘---다니엘 6장--132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즈가리아 4장--137

25. 요나와 아주까리(박넝쿨)--요나 3,4장----142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요한복음 1장---146
27. 가나에서의 기적-----요한복음 2장 1-11절---152
28. 주님과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 1-21절---157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요한복음 4장 1-42절--162
30. 베짜타 못-----요한복음 5장 1-16절---167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요한복음 9장--172
32. 선한 목자-----요한복음 10장---178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요한복음 11장 1-46절--184
34. 종려주일(4)-----요한복음 12장 12-50절--189
35. 포도나무의 비유--요한복음 15장--196
36. 부활절(4)-----한복음 20장----200
37. 여자와 용-----요한 계시록 12장----205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요한 계시록 13장, 19장 11-21절-210
39. 요한의 환상의 끝--요한 계시록 22장 8-21절--216
40. 새 교회의 날----요한 계시록 21장 1-12절---220

1

창조 - 이렛날

머리말

성경에 기록된 자연계의 창조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을 강조하면서 육일간의 창조를 재조명한 후 이렛날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1-7절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나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4.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5.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6.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7.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인식해두어야 할 첫째 사항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이다.
- * 말씀은 인간의 발달에 관한 것으로 시작된다.
- * 거듭남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질서에 의거한다.
- * 하나님을 아는 능력은 마음의 보다 높은 평면에 해당되며, 그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해준다.
- * 휴식이라는 안식의 상태는 주님의 진리를 배워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만 달성된다.

해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란 시작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서”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성서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은 성경이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러 권의 책으로 썩어 졌으나 그 책의 진정한 저자는 주님 한 분이시며 그것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다.

창조의 이야기는 “빛”이 마음속에 나타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위해 주어진 경이로운 비유이다. 우리 모두는 무지에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것이 1장 2절의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라는 구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배우며 그대로 살아가는 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분의 영을 받게 되며,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해 가면 언젠가 신뢰 또는 그분께의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행복한 심정 상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속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세상적인 욕망을 극복해 낼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험에 따르는 투쟁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 날의 쉼이 의미하는 바다.

일주일 중 쉬게 되는 이렛날은 주님의 의하여 거룩한 날로 정해졌다. 그 이유는 이 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규칙적으로 쉬며 변화해야 한다. 더욱이 이 휴식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날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즐기는 날로 착각한다면, 주일은 우리속의 모든 이기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활성화되어 이것들이 여느 다른 날보다 더 극성을 띠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가르치시며 병을 치유해 주셨고, 안식일에 제자들과 들판을 걸으시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관한 한 가지 간략한 규율을 주고 계신다. 즉 “안식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일을 “선을 행하는 날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날로” 그리고 “나의 욕심을 잊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실천한 후에는 주님께서 본문 2장 3절에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고 안식일에 대하여 적어 두신 이유를 어떤 이의 설명이나 조언 없이도 깨닫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From the Writings of Swedenborg)

「천국의 신비」 제 82-83항: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인간이 이제 ‘엿새날’에 도달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하늘’은 인간 속성 중 내부적인 부분을 그리고 ‘땅’은 외부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그 속의 모든 것’인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에 관한 지식들은 큰 발광체와 별들로 의미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하늘과 땅’ 둘 다 인간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록 하늘과 땅이 태고 교회에 관해 우선적으로 언급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교회를 의미하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개개인도 포함하는 것이 말씀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바, 주님의 성전이 없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 즉 [이러한 사람은] 교회나 천국에 의해 의미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태고 교회는 ‘사람’으로 불려진다.”

“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지는 바, 이는 인간이 ‘엿새날’이 되었을 때이다. 그 때에야 사랑과 믿음이 [인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이 아닌 사랑이, 다른 말로 영적이 아닌 천적인 원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그는] 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는가?
- 2)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성경의 첫 권은 무엇인가?

- 4) 창세기란 무슨 뜻인가?
- 5)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6) 창조 첫날에 무엇이 세상에 주어졌는가?
- 7) 몇 일만에 창조가 완료되었는가?
- 8) 본문 속의 “날, day”은 24시간이라는 하루와 같은가?
- 9) 주님의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0)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11) 인간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했는가?
- 12) 창조가 끝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14) 그분은 이렛날을 다른 날과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가?
- 15) “복 있다”란 어떤 뜻인가?
- 16)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 17) 그분 스스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 18) 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9) 영적으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하느님 3) 창세기 4) 시작 5) 한 처음에... 6) 빛 7) 6일
- 8) 아니다 9) 사람 10) 하느님의 모습 11) 모든 땅 12) 참 좋았다 13) 쉬셨다
- 14)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15) 행복하게 만듭 16)선
- 17) 예배드리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친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심
- 18) 1. 사랑으로부터 의를 행함 2. 진리에 의거 의를 행함
- 19) 시험과의 투쟁에서 쉽

2

카인과 아벨

머리말

에덴의 동산을 재고하면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장 1-15절

4장: 1.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2.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3.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5.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6.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7.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8.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피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9.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11.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12.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3.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4.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 내시니,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뵈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15.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교리요점

- * 주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며 미래를 위해 설비해두신다.
- * 태초의 사람들은 자연속의 만물에 대한 상응을 알고 있었다.
- *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함에 선함이 없게 된다.
- *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 안의 모든 사랑이 주님에게서 오게 된다.

해설

지상에 창조된 첫 사람들이 이렛날로 그려지는 단계에 도달되자 그들은 첫 번째 위대한 “교회”, 즉 태고교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이 세상 것에는 별 관심 없이 천국과 매우 가깝게 접촉하면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보호와 인도를 의존하고 살았다. 이는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과 같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상태를 동산으로 그려서 에덴의 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설화에서는 이를 황금시대라고 한다.

에덴의 동산에는 동산의 한 가운데에 주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가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리고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주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했고,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그들을 꾀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뱀이란 물질세계의 것만을 우리에게 사실처럼 보여주는 오감을 상징한다. 아담과 이브가 주님대신 뱀에게 귀를 기울여서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다. 어린이는 무언가를 새로 알거나 이루게 될 때 스스로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하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어린이는 유아기 시절에 지냈던 행복하며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하는 마음상태를 상실해 간다. 이러한 상실이 바로 성경에서 쫓겨남 또는 추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세상이 모든 것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천국적인 행복인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를 향해 줄달음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 밖으로 쫓겨난 후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카인과 아벨은 각기 믿음과 선행을 상징한다. 믿음이란 이해성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선행이란 심정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함께 일하며 서로 도와야 하는 형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인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둘은 분리된다. 이렇게 믿음과 선행이 분리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섬김”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카인의 제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안의 모든 순수한 사랑은 죽어 간다. 그 이유는 진실로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며 순종할 때 그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우인 아벨을 죽인 후에도 카인이 과멸되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설사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거나 형식적인 예배라도 바치는 동안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자기반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40항: “ ‘카인’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사물 자체만을 인정하고 인식한다. 이러한 믿음 이전의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던 것과 같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을 지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따로 떼어내 독자적인 교리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지각으로 알았던 사물을 교리 안으로 밀어 넣고 그 사물을 ‘나는 사람, 여호와를 가졌더라’는 식으로 부르는 바, 마치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새겨지기 전 존재한 것들은 단지 안다는 수준에 머물게 했던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362항: “ ‘카인’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교리가 여기서 기술되고 있다. 이 믿음은 사랑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 결과 이 믿음은 사랑의 소산인 선행과 분리된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른 의견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믿음속의 어떤 특별한 항목을 고집하는 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속성은 인간사고의 본성이어서 많은 항목 중 어느 것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자신이 그 항목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주장할 때 혹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 그를 부추길 때 그 사람은 더욱 완고하게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그가 주장하는 항목에 동의하고 확증되는 듯 여기게 된다. 그래서 설령 그 항목이 거짓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 옳다고 여기며 맹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카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믿음이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처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사랑 없이 살게 되어 자아사랑이나 몽상까지 그 믿음에 합세하여 확증해주는데 이르렀다.”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 2) 이 창조는 며칠(단계)에 있어졌는가?
- 3)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4)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5) 이렛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는 무슨 뜻인가?
- 7) 이렛날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가?
- 8)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지상의 첫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그리는가?
- 9)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금한 것은 무엇인가?
- 10) 그들을 불순종하게 유혹한 것은 무엇인가?
- 11) 불순종의 벌은 무엇인가?
- 12)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진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3) 카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 14)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그들은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16) 누구의 예물을 반기셨는가?
- 17) 카인의 예물은 왜 거절되었는가?

- 18) 카인의 진짜 인격을 드러낸 행동은 무엇인가?
- 19) 그의 별은 무엇인가?
- 20) 주님은 카인이 파괴됨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셨는가?
- 21) 카인과 아벨은 각기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카인이 아벨을 쳐 죽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6 3) 사람 4) 쉬셨다 5)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라
- 6) 행복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7)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 예배드리는 날
- 8) 에덴 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0) 뱀 11) 동산에서 추방
- 12) 카인, 아벨 13) 농부 14) 목자 15) 곡식, 새끼 양 16) 아벨의 예물
- 17) 불성실 때문에 18) 아벨을 죽였다 19) 방황자 20) 표를 찍어 주셨다
- 21) 믿음, 선행 22) 올바른 것을 행함 없이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3

바벨탑 이야기

머리말

노아와 홍수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서론으로 삼는다. 홍수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있게 된 인과응보였다는 것과 창조한 인류의 보존을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노아의 구원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만과 우둔함으로 인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1장 1-9절

11장: 1.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2. 사람들은 동쪽에서 옹아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3.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테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6.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7.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8.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 두었다. 9.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교리 요점

- * 성경에서 동쪽이란 주님에게 가까움을 상징한다.
- * 성경의 첫 7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진 순수한 상징적 이야기이다.
- * 말씀에서 온 진리 대신에 자기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설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혼동이 있게 된다.
- *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놓고 싶은 욕망이 멸망의 원인이다.

해설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상에 첫 번째로 있었던 위대한 “교회”의 결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이 교회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묘사된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인 고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닌 성경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성경의 곳곳에서 가끔 인용되거나 언급되기도 한다. 그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선조들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단순하며 순진함을 유지하는 동안 받아왔던 진리가 선조들에게는 내적 지각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배웠다.

두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고대말씀으로부터 아주 현명해졌다. 그들은 아마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 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뽐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늘날 학식이 있다고 우쭐대는 자들의 자만과도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잊어 버렸다. 따라서 그들 역시 선행에서 신앙을 분리시켜 가서 진정한 선행과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두 번째 교회의 끝을 묘사하고 있다. 영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은 낮은 계곡, 즉 사교가 세상적인 수준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게 되었다. 그로 인해 본문에서 언급되는 벽돌과 역청, 즉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인 돌 대신에 자신들의 사상인 벽돌과 마음속에 있는 선행인 흙으로 돌들이 서로 붙어 있도록 하는 대신에 이기심인 역청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그들의 목적이 스스로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각기 스스로의 편익만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만 말하여 서로 이해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에 모두 흩어져 사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초기의 인간들이 지상의 표면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과 그들이 아주 다양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며 아주 야만적인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들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바지만, 이는 진정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발견해낸 인류의 모습은 고대교회가 깨어짐에 따라 있게 된 파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각국의 신화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록된 역사 이전에 금 시대와 은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과 은의 시대에 인류는 제각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이루며 수 세기를 거쳐 구전으로 고대말씀을 전승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에 대한 지식을 주고 계시는데, 성경의 첫 7장까지에 있는 기록이 그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304항: “이웃을 향한 선행이 [마음에서] 분리되고, 그 자리를 자아사랑으로 채운 교회의 본성 속에는 믿음속의 교리가 곧 자아 숭배이며, 자아를 위한 것 외에는 어떤 거룩한 것도 그 속에 있을 리 만무하다. 자아사랑은 항상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이유는 타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미워하고, 자신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제한이 있지 않으면 하느님보다 더 찬양 받는 자리까지 차지하고자 덤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사랑에 고삐를 늦추어 주게 될 때 있어지는 모습은 이미 나에게 보인 바 있다. 이런 것이 ‘성과 탐’이 의미하는 바다. 자아사랑과 이 사랑에서 파생된 탐욕은 추잡하고 모독된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옥적인 것이다. 이로부터의 결론이란 자아 숭배라는 성질은 그 속이 지옥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카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인가?
- 2)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3) 그들은 주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4) 왜 카인의 예물은 거절되었는가?
- 5) 어떻게 주님은 카인을 보존하셨는가?
- 6)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갔는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멈췄는가?
- 8) 그들은 무엇을 짓기로 했는가?
- 9)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건축 재료로 사용했는가?
- 11) 주님은 그 건축을 어떻게 멈추도록 하셨는가?
- 12)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본문은 어떤 교회의 종말을 묘사하는가?
- 14) 이 탑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 15) 성경에서 그리스어의 어떤 말이 히브리어의 바벨과 같은 어원을 갖는가?
- 16)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진리를 받는 측면에서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사이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2) 농부, 목자 3) 곡식, 새끼 양 4) 불성실, 위선적이었다 5) 인(mark) 6) 동쪽으로부터 7) 시날(바벨론) 8) 탑 9) 하늘까지 닿기 위해
- 10) 벽돌과 역청 11) 언어를 뒤섞으셨다 12) 흩어졌다 13) 고대교회 14) 바벨
- 15) 바벨론 16) 이기심을 가지고 삶을 건설함 17) 지각, 양심

아브라함과 천사들

머리말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본과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님의 방향에 맞추려는 아브라함의 바램과 바벨탑 이야기에서의 사람들의 바램을 비교해 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8장

18장: 1. 야훼께서는 마르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2.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 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3.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팬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5.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5. 떡도 가져 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6.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 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7.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8.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영긴 젓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 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새싹이 돌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 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끓긴 지도 오래였다. 12.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하고 중얼거렸다. 13.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고 웃으니, 될 말이나? 14.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15. 그러자 사라의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뵈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16.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17.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19.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20.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21. 내려가서 그 하는 것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22.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다가 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과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24. 저 도시 안에 죄없는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25.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26.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 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28.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 곳에 죄 없는 사람이 사십 오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9. 아브라함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사십 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0. 아브라함이 또 여쭙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삼십 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자 31. 그가 또 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하고 대답하셨다.

32.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3.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강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실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심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 * 말씀에서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
- * 믿음은 진실로 마음속에 있다. 이해성은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 *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선행에 필수적이다.

해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백세가 다 되었다. 그가 선조들의 고향인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어 든든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약속 중 한 가지가 아직 성취 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상속받으며 큰 국가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목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주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그분께 대한 순종이다. 주님은 이러한 그의 장점으로 인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번성하도록 해 주실 수 있었고, 본문에서와 같이 그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사항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세 사람의 여행자를 천사 또는 주님의 특사로서 곧바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이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화는 한 사람과만 이뤄지며 아브라함의 질문들에 주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과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과 아브라함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음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에 의해 태어날 상속자에 대한 약속의 갱신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긍했지만, 사라는 의심이 드는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아는 바대로 사라는 그 해안에 주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

본문에서의 교훈은 신뢰와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언제나 장래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때로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자에게 늘 고생과 손해만 뒤따르고 악한 자가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비쳐지는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종 이처럼 영의 눈이 멀어져 버리는 까닭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중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장차 천국에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담겨있는 것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악한 성(성)인 이기적인 바램과 나쁜 생각들을 다정한 친구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해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해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재삼 약속하고 계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2216항: “합리성에 대한 애착과 합리적으로 진리 또는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웃음의 근원이다. 합리성 안에 이와 같은 애착이 웃음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만큼 그 안에는 인간적인 것, 즉 세상과 육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은 그들의 기쁨이나 상쾌함을 웃지 않고 얼굴, 언어, 몸짓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 이유는 웃음에 많은 다른 요소가 있고 심지어 경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항은 때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상쾌함과 쉽게 구별된다. 주님께 있었던 인간적인 합리성이 사라의 ‘웃음’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웃음에 의해 선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있게 되는 합리성의 진리가 어떤 종류의 애착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과 이것이 벗겨져야하고 그 대신 신성으로 입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전에 있었던 합리성을 신성으로부터 지각하시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그 속에 있을 것인지와 이것이 차차 추방되어져야 할 것임을 지각하셨다는 말이다. 이상의 내용이 사라의 ‘웃음’에 의해 내적으로 의미되는 것들이다.”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의 첫 고향은 어디인가?
- 2)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3) 그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인가?
- 4)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왔는가?
- 5)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6) 사실 그들은 누구인가?
- 7)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알려주었는가?
- 8) 왜 사라는 웃었는가?
- 9)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 10)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는가?
- 11) 아브라함이 주님께 묻은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3) 아브라함은 몇 개의 질문을 물었는가?
- 14) 주님은 그 때마다 어떻게 답하셨는가?
- 15) 아브라함이 언급한 가장 작은 숫자는 몇 명인가?
- 16) 아브라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아들의 출생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우르 2)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3) 헤브론(마브레) 4) 세 명
- 5) 귀중한 손님 대접 6) 천사들 7)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8)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의심했다 9) 소돔 10) 성을 멸하려고 11) 선한 이를 나쁜 자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 12) 만약 그 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이 있다면... 13) -5, 40, 30, 20, 10 (다섯 질문)

- 14)...하다면 멸하지 않겠다 15) 10 16) 단순한 신뢰와 순종의 상태
 17) 이기적인 인생관을 떠나 천국적인 인격을 발달시키라
 18) 새로운 지적 능력 또는 진리의 새로운 발달

5

이삭과 아비멜렉

머리말

이삭의 출생과 리브가와의 결혼 그리고 이삭의 삶을 먼저 살피면서 공부를 진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6장 1-33절

26장: 1.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사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2.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고 3. 그 땅에 몸 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피 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4.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붙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 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6. 이리하여 이사악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7. 그 곳 사람들이 이사악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사악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8. 이사악이 그 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사악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9. 이사악을 불러 들여 나무랬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사악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10. 아비멜렉은 “어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11.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12. 이사악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13.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15.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사악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봤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 버렸다. 16. 한편 아비멜렉은 이사악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 나가라”고 하였다. 17. 이사악은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18.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사악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사악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콧물 솟는 샘 줄기를 찾았다, 20.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악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 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22.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봤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23. 그는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 갔는데, 24. 그 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심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25.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 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26.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사악을 찾아 왔다. 27. 이사악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 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니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29.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 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30. 이사악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31.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32. 바로 그 날 이사악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 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33. 이사악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교리 요점

- *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린이로서의 우리를 발달시키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 * 그 방법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다.
- * 말씀 속에는 결코 우연히 이뤄졌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
- *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교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진정한 합리성은 말씀속의 진리를 배워 순종하고 싶은 바램에 기초한다.

해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앞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이 열 네 살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가 아기 이삭을 놀려대자 사라가 화를 냈고, 이로 인해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다. 성경을 글자대로만 읽는다면, 어린 소년 이스마엘의 부질없는 행동 하나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는 광야로 모자를 쫓아낸다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속에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성향은 현상에 근거해서 판단하려 하고 영적인 깊은 원인이나 원리들을 삭감해 버리려 하는 속성을 지닌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이러한 특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자신이 어른들 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곧바로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른들 역시 스스로가 주님보다 무엇이 선한지를 더 잘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내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도록 태어났으며, 우리의 성숙한 판단을 의미한다. 이 판단은 주님의 인도 하에 천천히 성장하며 발달도 늦게 이뤄진다. 그리고 이 발달은 꾸준하며 순종적이다. 본문은 이 성숙한 판단 곧 보다 높은 판단력이 아브라함에 의해 표현되는 어린 시절 속에 있는 단순한 순종과 신뢰함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린 후에도(창세기 25:7)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방향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4장 5-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가 마음의 정결과 원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서 마셔야 할 샘이라는 것과 그 샘물만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운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상징된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속의 세상적인 사상이나 욕망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거나 파괴하게 될 때, 우리는 15절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삭이라는 우리속의 보다 더 성숙해진 판단력은 18절에서와 같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된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그를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그와 우호 조약을 체결하자고 방문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를 번성시켜 주셨다.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될 때 혹은 조연이나 필요성을 느낄 때 찾아가야 할 사람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포부로 인생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자신의 깊고 확실한 반석(우물)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464항 (Arcana Coelestia n3464): “말씀의 글자에서 오는 교리라는 점에 국한하여 보면, 사람들이 교리 안에 있음과 더불어 그것에 따라 삶을 영위할 때 그들 스스로 상응을 이해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외면의 진리에 국한되어 있으나 그와 함께 하는

천사들은 내면의 진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교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천국과 교통을 갖게 되는데, 그 수준은 자기 삶 속에 있는 선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예로 성만찬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이것은 나의 몸과 피다.’라고 낭독되는 말씀으로부터 듣는 이는 자기의 단순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하는 천사는 이것을 들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행이라는 생각 안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몸 또는 빵에 상응되고, 이웃을 향한 선행은 피와 포도주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찬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거룩한 마음 상태 안에는 함께 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천국의 애착이 흐르게 된다. 그는 이 사랑하는 심정을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선함에 일치시켜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들의 거주지가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애착인 바, 즉 각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삶과 불일치해서 있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불일치하는 삶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만약 누군가가 교리적인 것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명예와 부를 얻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한 천사들은 지쳐서 떨어지고 지옥의 것들이 그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된다. 자신과 세상을 위한 목적으로 교리적인 것들을 확증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주입해 놓은 사람의 믿음은 타인의 마음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는 구변의 진실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그 결과 진정한 믿음은 그런 사람에게서 거두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입술에만 교리가 있어져 단지 자아사랑이나 세속적인 사랑으로 수식되는 열기만 내뿜게 될 뿐이다.”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사악의 아내는 누구인가?
- 3) 이 아내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 4) 이사악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5) 주님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어디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 6) 그 대신 이삭은 어디로 갔는가?
- 7)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가?
- 8) 그는 이삭을 환영했는가?

- 9) 누가 과거 블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는가?
- 10) 블레셋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가?
- 11)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의 몇 개를 못 쓰도록 방해했는가?
- 12) 이삭은 그들과 다투었는가?
- 13)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과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14)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 15) 브엘세바란 무슨 뜻인가?
- 16) 이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블레셋사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 놓은 우물을 메워 버린 모습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이삭 2) 리브가 3) 하란 4) 에사오와 야곱 5) 이집트
- 6) 그랄 지방 7) 아비멜렉 8) 환영했다 그러나 후에 그를 두려워했다
- 9) 아브라함 10)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다 11) 두개 12) 다투지 않았다
- 13) 평화의 맹세 14) 브엘세바 15) 맹세의 우물 16) 영적인 추론력
- 17) 말씀 18)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 19) 주님의 안대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선호하는 것

6

야곱의 귀향

머리말

야곱의 출생이 언급되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25장부터 34장까지 시간을 내어 읽은 후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5장

35장: 1.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 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네가 형 에사오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느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2.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3.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4.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물었다. 5.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자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6.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6.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7.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 하느님께서 그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8.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알론바굿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9. 야곱이 비탄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20.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11.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12.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1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15.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16. 그들이 베델을 떠나 가는 도중, 에브랏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난산이었다. 17.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과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입니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18.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19. 라헬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20.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21.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므달에텔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 빌하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이 있었다.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불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27.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키랏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28. 이사악은 백 팔십 세나 살았다. 29. 이사악이 이렇게 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예사오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이기심까지도 사용하신다.
- * 말씀속의 어떤 것도 우연히 이뤄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 * 모든 것은 먼저 지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생각이나 행동의 첫 원인이다.

해설

야곱의 꿈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잘 알려진 것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젊은 야곱이 홀로 여행하던 중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그는 그곳에서 지상에서 하늘까지 닿고 있는 사다리를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 꼭대기에 주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깨어나 주님께 서약을 했다. 즉, 주님이 자신을 번영시켜 주신 다음 고향으로 안전하게 되돌아가도록 해주시면 주님을 언제나 섬기겠다고 하는 서약이었다.

꿈을 꾸는 그 순간 야곱의 바램은 사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곱은 하란에 도착한 후 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서 이십여 년을 체류했고, 삼촌을 섬기면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들의 하녀 빌하와 질바를 얻었고, 그들로부터 열 한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다. 위의 이야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청소년기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 담겨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좋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학교와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을 인도해 줄 종교적인 원리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들 중 일부는 특별히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랑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스스로의 신앙을 깊이 다져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떠나 대학이나 직장을 찾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을 만나 사랑하게 된 후 결혼하면서 불어나는 식구들을 위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인생이 전개되면서 이들의 마음과 삶은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그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이상향은 그들의 마음에서 잊혀져 간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더 깊고 더 높은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자기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 곧 누가복음 15장의 방탕한 아들이 말한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구절의 뜻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이는 본문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도 의미된다. 즉, 자신이 쟁취하던 그릇된 포부와 세상적인 만족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과거에 약속했던 주님과의 서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기초로 예비 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청종하는 부류에 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4563항: “인간이 부모로부터 악을 이어받는다든 것과 그 악이 유전적인 악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간은 이런 악 속에 태어나지만, 이 악은 인간이 성인이 되어 자기의 이해성과 의지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악은 감추어져 있는데, 특히 유아기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 인해 어느 누구도 유전적인 것 때문에 질책되지 않으며, 실제적인 것에 의해서 질책 받게 된다(m. 966, 2308). 그리고 유전적인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해성과 의지로 행동할 때까지는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아들의 경우 그분의 천사들을 수단으로 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설사 이러한 유전적인 악들이 유아들이 하는 모든 것에 잠복되어 있다할지라도 유아들은 순진한 상태를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내게 된다. 심지어 이 유전적인 악은 유아들에게 자양분을 주며 흔히 유모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는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기까지 있게 된다. 그 다음 그들이 거둬나게 되면 주님께 의해 새로운 유아의 상태로 인도되고, 마지막으로 천국적인 지혜 곧 순수한 유아 상태 혹은 순진성 안으로 인도된다. 그 이유는 순수한 유아 또는 순진성은 지혜안에 거처를 두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순진에는 유전적인 악이 그 속에 있는 반면에 지혜의 순진에는 유전적인 악과 실제적인 악이 모두 없어서 두 순진은 아주 다른 것이다.

질문 정리

- 1)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는가?
- 2)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체류했는가?
- 3) 그가 결혼한 두 여자는 누구인가?
- 4) 하란에서 몇 명의 아들이 그로부터 태어났는가?
- 5)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렸는가?
- 6) 열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7)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 8)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그는 어디로 향했는가?
- 9) 그가 베델에 도착하기 전 멈춘 장소는 어디인가?
- 10) 야곱은 세겟에서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11) 누가 베델에 이미 묻혀 있었는가?
- 12)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했는가?
- 1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 14) 야곱은 이사악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15) 야곱과 예사오는 어디에 이사악을 안장했는가?
- 16) 리브가의 유모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매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2) 20여 년 3) 레아, 라헬 4) 11명
- 5) 요셉 6) 베들레헬 근처 7) 베냐민 8) 세겟
- 9) 남의 나라 신들과 귀걸이를 버려라 11) 드보라
- 12) 돌로 제단을 쌓았다 13) 큰 국가의 선조가 되게 하리라
- 14) 헤브론(마브레) 15) 막벨라 동굴 16) 유전적인 이기심
- 17)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귀향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동인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

머리말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재조명 한 후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48장: 1. 이런 일이 있을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2.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3.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4.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5.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향렬에 들어야 한다. 6. 그 아이들 다음으로 난 아들들이 네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7. 내가 바단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에브랏 채 못 미친 길가에 나는 네 어미를 묻었다. 그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다.”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애들이 누구냐?” 9.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이 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처지였다.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 오자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11.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 구나.”

12. 요셉은 자기의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받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13. 그리고 요셉은 두 아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오른 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나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 손 쪽에 가까이 가게 했다. 14.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아우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15.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느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느님, 16.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내준 하느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

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아버지의 손을 므나세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 했다. 18.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야유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 그러자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술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20.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느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나세처럼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나세보다 앞세웠다.

21.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살피 주시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22.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세겜 하나만는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다.

50장: 22. 그 후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백 십 세가 되었다.

23.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삼 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나세의 아들 마길의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향렬에 들였다. 24.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악, 야곱에게 주시마고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25.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26.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은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인간성을 입으시고 그 인간성을 신성화 하셨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은 인간성을 통해 오게 된 시험들을 극복해 내셔서 인간성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 *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 또는 천적인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동안 있어진 그분의 내적인 삶을 기술하고 있다.
- * 주님은 우리 속에 저장된 어릴 때의 믿음의 형태를 보존하셔서, 그것을 차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초로 삼으신다.
- * 선을 행할 수 있기 전에 올바른 것을 배워야할지라도 선의지는 반드시 먼저 실재해야 한다.

해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자라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요셉이 구약성서에서 전적으로 칭송 받는 몇 사람 중의 하나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상생활을 생각나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질시 받았다. 오랜 후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거절되었던”것같이 말이다. 요셉은 은 몇 푼에 팔려 졌다. 그는 섭리에 의하여 죽음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이집트로 옮겨 졌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신뢰하며 올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에 슬기롭고 위대한 자가 되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의 “주님이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받게 되었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해준다. 마침내 그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고개 숙여야만 하는 통치자가 되었지만,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요셉은 우리속의 보다 높은 영적인 지각력을 표현한다. 이 지각력은 우리 속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들이 세상적인 성공에 쏠려 있는 동안에 이 지각력을 잊으려고 애쓰며, 아예 눈에서 안보였으면 하고 마음 한 구석에 쳐 박아 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들을 보존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지각력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고, 주님은 이때를 위해 그것을 강건케 해 주신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나세란 두 아들을 가졌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들은 언제나 신앙과 선행 또는 이해성과 의지를 표현한다. 요셉의 두 아들은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진리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인식함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들을 표현하고 있다. 므나세는 형이었는데, 그는 우리속의 의도심 또는 의지에 해당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에 해보고 싶다는 자극이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각이나 행동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므나세, 즉 의지가 첫 번째로서 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는 사항은 야곱이 죽기 직전 형인 므나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꿔 놓은 사건이다. 에브라임은 생각에 해당된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자극이 먼저이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해야 할 방법을 배우기전까지 그 선한 의도는 어떤 것도 수행할 수 없고, 설사 일을 한다하더라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라고 중얼거리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선한 의도가 잘못 수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주일 성경학교에 보내고 우리 모두의 전 생애를 통해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시기에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설령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에서 새로운 진리를 계속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적 진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6222항: “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 속에 있는 교리나 교의를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확증하는데 숙련된 자, 또는 많은 학설들을 꿰어서 남들로 하여금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교회 속에서도 지적인 자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 속에 든 지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교의를 확증하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이

발명해낸 재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서도 무수히 존재하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흔한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확증하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손쉬운 일로 지극히 단순한 자에게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의 지적인 것은 어떤 교의가 확증되기 전 그 교의의 진위여부를 보거나 이를 지각한 다음에 그 교의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브라임에 의해 표현되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므나쎄로 표현된 교회속의 선은 주님께서 믿음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교회속의 사람 안에 그 사람도 모르게 은근히 심어 놓으신 선행으로부터 있게 되는 선인 것이다. 그 이유는 선행의 선을 가진 이들에게 지적인 것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계발하고 그 선이 지적인 것을 만들어 의지는 한 마음 곧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애착이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적인 부분은 계발이 되는 것이며 여타 다른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지적인 근원이 없다.”

질문 정리

- 1) 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3) 이집트에서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은 누구인가?
- 4) 요셉의 큰아들은 누구인가?
- 5) 왜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을 데려 왔는가?
- 6)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축복 받아야 한다고 예상했는가?
- 7) 야곱은 누구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 8) 야곱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셉의 아들에게 내렸는가?
- 9) 야곱은 어디에 매장되었는가?
- 10) 그 매장지에는 야곱 외에 누가 더 매장되어 있었는가?
- 11) 요셉은 죽을 때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 냈는가?
- 12) 요셉의 시신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 13) 므나쎄와 에브라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왜 야곱은 둘째 아들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질문의 답

- 1) 기근 2) 먹을 것과 집을 제공했다 3) 므나쎄, 에브라임 4) 므나쎄
- 5) 축복 받기 위해 6) 므나쎄 7) 에브라임 8) 그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 9) 막벨라 동굴 10) 아브라함, 사라, 이사악, 리브가, 레아
- 11)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 12) 미이라
- 13) 에브라임 = 교회에 대한 지식, 므나쎄 = 교회의 지식에 따라 살고 싶은 바램
- 14) 우리에게 항상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사항이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과 월 절

머리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변화와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과 과월절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2장

12장: 1.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 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3.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십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4.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5. 흠이 없는 일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6. 너희는 이 달 십사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7.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8.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9.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10.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11.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12. 그 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만이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13.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14.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15. 너희는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 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16.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칠 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 날에는 그 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7.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18. 정월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9. 칠 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은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 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20. 누룩이 든 것은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21.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 제물로 잡으시오. 22. 우슬초뭉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은 피를 묻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 23.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오. 24.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오. 25. 당신들은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26.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27. 이것은 야훼께 드리는 과월절 제사라고 일러 주시오.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 주신 야훼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28.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9. 한밤중에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만아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30.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는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31.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 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32.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다오.”

33.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때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 달라고 재촉하였다. 34.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갔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36.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37.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쪽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육십 만 가량이 되었다. 38.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39.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40.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무른 것은 사백 삼십 년 동안이었다.

41. 마침내 사백 삼십 년이 끝나던 바로 그 날에 야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 나왔다. 42. 그 날 밤, 야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새워 가며 지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이다.

43.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과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제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43.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 같이 먹을 수 있다. 45. 머슴이나 몸 붙여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46.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여지지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47.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과월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48. 너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서 야훼께 과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민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49. 본토민이든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50.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51. 바로 이날에 야훼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교리 요약

- *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 과월절은 말씀에서 거듭 반복되어져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건이며, 말씀의 각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영적인 용도에 충당될 수 있다.
- * 말씀에서 배운 것을 즉시 실행하는 영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해설

단어 출애굽은 “나감”이란 뜻이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이백년 이상 머무른 후 모세의 인도 하에 이집트를 빠져 나와 광야를 거쳐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의식주를 공급받고 보호를 받고자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집트는 천연의 기후풍토 때문에 고대 세계의 큰 곡식창고여서 가뭄과 흉년이 근동을 강타할 때 근동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모여들던 곳이었다. 이러한 이집트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에 관한 세상의 창고를 표현한다. 우리가 삶의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들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이집트로 상징되는 지식의 창고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필요로 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창고 속에는 그와는 다른 지식들도 있다. 즉,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지식이란 넓은 의미에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즉 자신의 발전만을 위한 것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요셉이 죽고 난 후에도 이집트에 오래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요셉은 우리의 보다 높은 것 곧 영적인 지각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 지각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라는 것의 노예가 되고 만다. 한 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요 고된 길이 되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노예 신세로부터 벗어나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차후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모세는 신성한 법을 표현한다. 이 법은 우리의 거짓 생각과 이기적인 모든 바램 그리고 세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들춰내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 법에 순종하면서 선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천국으로 인도되기도 한다.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전날 저녁 큰 축제를 가지도록 명령되었는데, 이를 과월절 축제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축제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인들의 만아들을 죽일 때 그들의 집은 지나치도록 하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장래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이 절기를 기념하도록 명령되기도 했다. 이 절기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님은 과월절을 기념하시면서 기독교회를 위해 과월절 대신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과월절 어린 양”으로도 불리신다.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셔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함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994항: “진정한 선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속에 반드시 순진이 존재해야 한다. 순진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더욱이 순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이다. 이런 이유로 순진은 사랑과 선행 그리고 선에 대해서 불가결한 요소이다. 순진이 존재하는 인간의 것(proprium)이란 자신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악뿐이며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존재함을 알고 인정하며 믿되 입으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믿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속에 든 것은 검은 것 밖에 없다는 것 곧 의지라는 자아 속에는 악뿐이며 이해성이라는 자아 속에는 거짓뿐임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 주님께서 선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흘러들어 오지게 되고 빛나는 백색의 천국적인 자아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 어떤 이도

진정한 겸손 속에 있을 수 없다. 자아가 절멸된 속 혹은 자아가 없는 속이야 말로 주님의 신성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주님은 이를 수단으로 하여 성결된 마음, 즉 겸허한 마음 안으로 선을 갖고 흘러들어 오시는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7996항: “넓은 측면에서의 축제는 고대시대 때에 저녁 식사 혹은 잔치이든 간에 모두 교회 안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 또는 천국에 속한 것들이 서로에게 훈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그 당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만찬이 있어진 목적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영과 육이 서로 일치하고 상응되어 자양분을 섭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장수했으며, 총명과 지혜를 가졌던 것이다. 또한 그들 중 어떤 이는 천사과의 교통이 열려 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내적인 것이 모두 사라지자 잔치가 의미하던 진정한 내용물은 인간의 마음에서 없어져버렸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잔치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영적 결합 없이 단지 세상적인 결합만 있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되어 버렸다. 즉, 명예나 쾌락 등 육체적인 것을 위한 자양분만이 잔치에 남아 있을 뿐 마음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누가 이 후손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세워졌는가?
- 3) 무엇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 후손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는가?
- 4) 몇 개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는가?
- 5)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6) 장자가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후손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 7) 이집트인들은 이 후손들이 빠져나가는데 무엇까지 제공했는가?
- 8) 이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무슨 축제를 가졌는가?
- 9) 왜 이 축제가 과월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 10)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11) 그 고기와 더불어 무엇을 먹었는가?
- 12)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차림으로 먹었는가?

- 13) 먹고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 14) 이집트를 떠날 때 이 후손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 15) 그들은 과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회상했는가?
- 16) 이 축제는 일 년에 몇 번 준수되었는가?
- 17) 기독인은 과월절 대신 어떤 축제를 지키는가?
- 18) 이 축제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 19) 어린 양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순진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노예가 되었다 2) 모세 3) 재앙 4) 10 5) 장자가 죽는 재앙
- 6) 문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7) 금, 은, 의복 8) 과월절
- 9)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처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10) 불에 구웠다
- 11)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 12)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 13) 불에 살랐다 14) 60만 15) 노예로부터의 해방
- 16) 매해 한 번씩 영원히 17) 성만찬
- 18) 예수님께서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19) 순진
- 20) 해치지 않음, 주님의 인도를 기뻐함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머리말

우리에게 친숙한 출애굽기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인 홍해를 건넜던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 엘림에서의 휴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한다. 앞서 했던 공부와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17장

17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썩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 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2.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하고 말했지만, 3.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4.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6. 내가 호렘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트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싸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8.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 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 가 있었다. 11.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13.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14. 아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15. 모세는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아훼 니씨라고 이름을 붙이고 16. “아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아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하고 외쳤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께 꾸준히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
- * 우리가 어떤 삶이 올바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 * 우리를 낙심 속에 빠지게 하려는 악은 언제나 우리 속 깊은 곳에 드러누워 있다.
- * 낙심은 이기심의 발현이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월절을 기념한 날 밤에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가야할 방향을 보여주셨다. 이 여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달팠지만, 주님은 여행기간 동안 내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뒤 파라오는 마음이 변해 그들을 추격하도록 홍해까지 군대를 보냈다. 하지만 홍해가 백성들 앞에서 갈라져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집트의 군대가 계속 추격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서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된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불과 구름기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쪽으로 인도해갔다.

우리가 자아 중심으로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노예 생활임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그분이 “복되다”고 부르시는 일련의 삶을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으로 향하는 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여행 초반에는 누구든지 열심을 내며, 열광적일 정도로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열광적으로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실망시키는 이런저런 곤경에 휘말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고 극복해야 할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광야 여행 곧 모든 시련과 낙망을 가진 이 여행은 우리 앞에 한동안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시련 가운데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산으로 향하는 도중이었다.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메마른 계곡을 통과하도록 인도되어서 매우 목이 말랐다. 주님은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4:13-14).”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호렙의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솟아난 물은 위 구절과 똑같이 생명이 있는 물, 즉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하느님의 말씀에서 출원되는 진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둘 사항은 성경에서 주님이 바위와 말씀 모두로 불린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이 해결된 직후 첫 전투에 돌입해야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운 후 자신 안에 든 악을 때려 부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진리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낮은 계곡으로부터 위로 들어 올려야만 한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그의 팔을 들어 올리고 있어야만 했던 것 그리고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팔을 떠 받쳐 올려 주어야 했던 것들 모두는 우리의 지성을 들어 올려서 싸워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 꾸준히 도움을 청해야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해결책 혹은 그 원리들을 우리를 지탱시키고 견고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555항: “앞장에서의 내적인 의미는 세 번째 시험에서 다뤄진 것으로서 그 시험은 선의 결핍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이며 본문에서의 내적인 의미는 네 번째 시험이 취급되는데, 그 시험은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트린’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리가 주님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호렙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구절에 대한 의미이다. 그런 다음 악에서 온 거짓과 믿음의 진리와 선 사이에 전투가 뒤따른다. 이 전투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로 표현된다. 믿음의 진리와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들이 주님을 향해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적을 정복하지만 아래를 쳐다 보고 있게 되면 굴복당하고 마는 것이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 2) 무엇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는가?
- 3)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명은 무엇인가?
- 4) 그들은 왜 불평했는가?
- 5)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7) 이후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누가 전투를 위해 지도자로 임명되었는가?
- 9)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 10)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에 올라갔는가?
- 11) 모세는 전투 상황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었는가?
- 12) 그가 지치자 누가 그를 도왔는가?
- 13)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14) 바위에서 물이 솟아남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말렉은 무엇을 그리는가?
- 16)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본문에서의 아론과 후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홍해가 갈라짐 2) 구름(불)기둥 3) 르비딤 4) 물이 없어서
- 5) 바위를 치라 6) 물이 솟아났다 7) 아말렉 8) 여호수아 9) 언덕위로 올라갔다
- 10) 아론과 후르 11) 팔을 들고 있음으로 12) 아론, 후르, 돌 13) 제단
- 14) 확박한 진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임 15) 실망, 유전적인 자아 의지에 기초를 둠
- 16) 하나님쪽으로 생각을 들어올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분의 도우심을 회상함
- 17) 아론 - 교회의 교리, 후르 - 성경학교, 교회, 부모님, 선생님에게서 배운 생각들

10

금 송 아 지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리고 24장을 읽은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본문까지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억되도록 한다.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산을 오르내렸다. 특별히 24장 18절은 32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모든 백성들이 산에서 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몇 번씩이나 그분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해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2장 1-24절

32장: 1.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물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

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하고 대답하자 3.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 5.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하고 선포하였다.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 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8.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떠드는구나!” 9.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10.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11.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 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12.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 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14.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15.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 서서 산에서 내려 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16.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17.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 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18.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 소리다.”

19.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수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다. 20.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불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21.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22.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23.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데려내 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24.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교리 요점

- *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물이 삶의 첫 번째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해야 한다.
- * 주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약함을 보여 주시는데, 실상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고 계신다.
- * 우리 역시 감각적인 경험만을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가 쉽다.
- *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은 우리를 올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며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두 기둥들, 즉 낮의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들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실재하심이라고 인식하고, 기둥들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며 기둥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데로 이동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때로 우리를 격려해주거나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또는 시험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따라서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다.

르비딤 지역으로부터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나이 산으로 인도했다. 이 산은 바닥은 평지이면서 산만큼은 높고 가파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전 백성이 산 근처에 있는 평지에 야영할 수 있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 때에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예배를 위한 모든 법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으로 인해 유목민에 불과했던 수준에서 조직화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들이 표현 하는 이스라엘 교회도 건립되었다.

그들에게는 제일 먼저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계명이 주어지는 소리는 천둥과 번개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들려 졌다. 사실 그들이 십계명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 주셔야만 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십계명의 법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요 모든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결코 바뀔 수 없으며, 해를 자초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다.

모세는 십계명 외에 다른 법과 규정들을 받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주님으로부터 몇 번이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사 십일을 주야로 구름에 감추어져 산 위에서 지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우리 모두는 **자연계 속에** 있는 것 중 예를 들어 보이지는 않는 중력이나 전력에 아주 큰 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의 금송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을 자기 삶의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를 명심하면서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경이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407항: “표현적인 예배 속에 있었던 고대인들은 각종 동물들에 의해 상징되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각 동물이 각기 고유의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에 따라 천국에서 동물들이 나타나고, 그 의미에 따른 결과가 말씀 안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인들은 이에 따라 번제물이나 제물을 정했다. ‘송아지’는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선행이나 순진의 선이 의미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이 없는 때, 즉 내적인 것이 없이 외적인 것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서 ‘송아지’란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자아

또는 탐욕인 욕의 쾌락에서 오는 기쁨들이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만 가진 이들도.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만을 예배하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 역시도 우주의 하느님을 예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일 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들로 의미된다. 이집트인들은 여느 사람들보다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응과 표현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졌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유물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된 우상이 바로 송아지였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 예배의 외적인 선으로 의미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상응이나 표현의 지식에 정통하게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지식들은 마술로 변했다. 그러면서 송아지가 그 반대의 의미, 즉 외적 사랑의 기쁨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송아지가 그들의 신전에 놓여 신으로 예배되었을 때의 송아지는 예배에서 이와 같은 반대적인 기쁨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런 우상적인 것들을 도입했을 때, 즉 송아지가 그들에 의해 신으로 예배되어졌을 때 예배 속에서도 그 국가가 사랑하는 것들의 기쁨을 의미하게 되었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후손은 시나이에서 얼마나 오래 야영했는가?
- 2) 백성들은 주님께서 시나이산 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는가?
- 3) 주님은 그 외의 어떤 지시를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는가?
- 4)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5) 본문에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 7)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8) 아론은 백성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가?
- 9)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10)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11) 모세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을 보자 무엇을 했는가?
- 12) 그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13) 아론은 자신을 어떻게 변명했는가?

- 14) 금송아지는 무엇을 그리는가?
 15) 첫 돌 판과 후에 산 아래서 다듬어졌던 둘째 돌 판의 상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거의 일년 2) 계명 3) 행동 지침의 법, 예배에 관한 사항 4) 산꼭대기
 5) 40일 6) 영원히 갔다고 7) 신들 8) 금귀고리 9) 송아지 10) 두 돌판
 11) 돌판을 깨트렸다 12)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다
 13) 불 속에 금을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 14) 세상적 성공과 육의 쾌락을 사랑함
 15) 첫 돌판 = 율법의 높고 영적인 형태
 둘째 돌판 = 세상적인 사람의 수준에 적합한 율법의 형태

11

아론의 가지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론에 관한 부분인 출애굽기 28장 1-4절과 40-43절을 먼저 읽고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기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의 열 두 스파이, 특히 14장 26-35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공부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7장 16-28절

17장: 16. 아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7.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에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18. 레위 가문의 가지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른에게 나뭇가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9. 그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 두어라. 20. 내가 택한 사람의 가지에서 싹이 돋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20.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자 각 가문별로 대표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 중에는 아론의 가지도 있었다. 22. 모세는 그 가지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아궤 앞에 놓아두었다. 23.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 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24. 모세가 그 가지들을 아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가지를 찾아 가지고 돌아갔다. 25. 아궤에서 모세에게 이르렀다.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고 두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26. 모세는 아궤에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7.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젠 끝장이요. 영광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아궤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이요?”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정도는 인식해야 한다.
- *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징조는 우리를 위한 징조도 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측량된다.
- * 자아로부터 행해진 것 속에는 순수한 선이 하나도 없다.

해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를 떠나 광야를 거치는 중이다. 한때 그들은 거룩한 땅이 보이는 집경에까지 이르렀으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땅을 정탐하도록 미리

보낸 스파이들 중 열 스파이가 그 땅에는 견고한 성과 힘센 민족 그리고 거인들까지 살고 있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죽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 중 두 명의 스파이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승리할 수 있으니 쳐들어가지고 권유했지만, 대 다수의 백성들이 열 스파이의 보고에 이미 무척 실망한 상태였다. 그 결과 주님을 신뢰함이 결핍되어 겁먹은 선택으로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만을 제외하고 죽을 때까지 40여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 죽어야만 했다. 우리 역시도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큰 혜택을 종종 잃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전진하는 자세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흡사하다. 즉, 우리가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남에게서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에게 고달픔이 있다고 불평하며 그들에게 반역했다.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그 반역의 즉각적인 결과와 거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또 다른 종류의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은 시나이에서 아론을 대성직자로 임명하셨고, 그의 후손만이 성직자 직을 승계 하도록 명령하셨다. 지금 주님은 가지들의 징조를 통해 모든 백성들의 눈에 그분의 선택을 확인시켜주신다. 주님은 각 지파마다 열 두 가지들 중에서 나뭇가지 하나씩을 가져와서 그것에 해당지파의 이름을 적고, 성막의 지성소 안의 궤 앞에 그것을 밤새 놓아두도록 하셨다. 이튿날 아론의 가지에는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가지들은 그대로였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열매가 행위를 의미한다는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감복송아는 맛있고 자양분이 많으며 생명력이 길 뿐만 아니라 그 꽃 또한 매우 이름답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함 곧 인내하는 선행이 우리를 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여 두고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하신 명령처럼 본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622-2,3항: “ 감복송아’란 내면의 자연성숙에 든 선행에서 비롯되는 진리에

상응되는 생활의 선을 의미한다. 이 나무 자체는 영적 의미에서 선으로부터 존재하는 내면의 진리에 대한 지각을, 그 나무의 ‘꽃’은 그 지각에서부터 있어지는 생활의 선을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감복숭아 나무’가 예레미야서 1장 11-12절에서 언급된다. ‘레위기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서 싹이 돋았다’라는 구절 역시 생활의 선 또는 선행의 선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이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신 처음의 법은 무엇인가?
- 2) 주님은 그곳에서 그 외의 어떤 법을 주셨는가?
- 3) 왜 백성들은 모세가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 4)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5) 아론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가?
- 6) 아론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 7) 모세는 산에서 가지고 내려 온 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8)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9) 주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성직자 로 임명하셨는가?
-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배회한 까닭은 무엇인가?
- 11) 이 백성들은 곤경의 탓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 12) 모세와 아론에 반기를 든 사람에게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13) 본문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 14) 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15) 레위지파의 나무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졌는가?
- 16) 모세는 그 가지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 17) 다음날 아침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8) 이 광경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19) 주님은 아론의 가지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20) 아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감복숭아란 어떤 영적인 특질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많은 부속법들 3) 40일 동안 가 있었기 때문
- 4)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5) 송아지 6) 귀에 걸린 금고리
- 7) 돌판을 깨트렸다 8) 파괴했다 9) 아론 10) 믿음의 결핍
- 11) 모세와 아론 12) 멸망했다 13) 가지 14) 가지에 이름들을 새겼다 15) 아론
- 16) 증거궤 앞 17) 아론의 가지에 감복송아 열매가 달렸다 18) 아론만이 대성직자 이다
- 19) 궤 앞에 보관 20)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랑함
- 21) 영적 진리를 지각하는 것에 기초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선행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백성

머리말

본문을 읽어보면 지난 줄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알 수 있다. 즉,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여호수아의 임무(1:7-9)등이다. 요르단을 건넌과 길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돌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과 연관 지어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5장

5장: 1.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2. 그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못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4.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 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5.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6.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야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마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7.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뚝거지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달 십 사일 저녁때에 예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11. 과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 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떴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13.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나? 우리 원수의 편이나?” 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교리요점

- *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적을 대적하실 수 있다.
- * 말씀에서 언급되는 모든 지역명은 각기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진보를 계속 해가려면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 할레란 자아사랑으로 더러워진 심정을 깨끗하게 함과 상응된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거룩한 땅이 건너다보이는 요르단 강의 독으로 인도되었다. 그 세월 동안 주님께 반역적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모세조차도 그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죽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이전의 청소년들은 성장 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모세라는 지도자 곧 주님의 법을 지도자로 삼는 동안 질서 있는 생활을 우리의 습관으로 형성하면서 과거 우리 속에 있던 주님께 반역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이야기에서의 거룩한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천국이 시작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천국적인 인격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살게 되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태어난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 관하여 배우고, 그 아버지로부터만 발견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과 진정한 지혜의 이모저모를 우리 속의 심정과 지성 에 이식시켜 키워감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여호수아에서 거룩한 땅을 정복해 가는 모습으로 의미되는 것이다. 거룩한 땅 내에 있는 적이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악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주님은 과거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사히 건너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앞의 길을 그분께서 언제나 열어 주신다는 뜻이다. 이 백성들이 강을 건넌 뒤의 첫 숙영지는 길갈이었다. 길갈이란 단어의 뜻은 “굴림, 회전 또는 벗김”인데, 본문 9절에서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하고 말씀하신 것에서 연유되어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거룩한 땅에 진입할 때 곧 거듭 나는 상태로 진입하게 될 때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더 이상 동경하지 않고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설사 순종함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때에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든 적들을 끊임없이 추적하여 없애버리기 위해 우리 마음의 사령관의 지휘 아래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순종과 노력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이모저모가 바로 본문의 요지이다. 먼저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계명에 끊임없이 순종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호수아서 4장 1-5절과 20-2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한다(5:2-8). 그리고 말씀에서 받은 진리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고 가꾸어 좋은 곡식을 거두어야 한다(5: 11-12). 그런 다음 우리는 거듭 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과 거룩한 삶이란 우리 속에서 당연하다는 듯 걸어 다니는 세상적인 사상을 끊고 주님의 진리를 우리속의 이기심과 싸우는 데에 사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5:13-15).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700-14항: “요르단 강물이 입문 역할을 하는 진리들을 의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한복판에서 열두 개의 돌을 메어 와서 그들이 하룻밤을 지낸 첫 야영지에 그것들을 운반해 놓으라고 명령된 것이다. ‘돌’은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열 두 개의 돌’이란 교회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여호수아는 이 돌들을 여리고 동쪽인 길갈에 세웠는데, 그 이유는 ‘길갈’이 자연적인 진리를 의미하고, 자연적인 진리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독 종교」 제 674항: “교회들이 고대 시대 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전의 교회들은 나중의 교회보다 외적인 것, 즉 이전 교회의 예배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어 기초를 이룬 기독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외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주님에 의해 맨 처음 세워졌음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후에 있게 될 기독교회와 우선적으로 다른 점은 할례였다. 앞서 말한 바대로 이스라엘 교회의 모든 것은 외적인 상태여서 내적인 상태의 기독교회의 모든 것을 형태적으로 미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특별한 표시들은 기독교회의 내적인 표시와

같이 된다. 즉, 할례는 육적인 갈망을 거절함 또는 악으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하며 세례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로부터 명확해지는 사항은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도록 분부되었다는 것과 세례가 기독교회와 유대교를 구별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교회임을 더욱 명확히 인식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2)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3) 누가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 4) 이 백성들은 어떻게 요르단 강을 건넜는가?
- 5) 그들은 강바닥에서 무엇을 취했는가?
- 6) 그들은 열 두 개의 돌을 취해 무엇을 했는가?
- 7) 거룩한 땅에서 이 백성들의 첫 숙영지는 어디였는가?
- 8) 길갈은 무슨 뜻인가?
- 9) 왜 길갈이 그렇게 불렸는가?
- 10)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어떤 예식을 지키도록 했는가?
- 11)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했는가?
- 12) 그곳에서 만나의 공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왜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 15) 천사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가?
- 16)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17) 광야에서의 배회생활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모세와 여호수아가 표현하는 상이점은 무엇인가?
- 20) 세례와 성찬의 모양을 나타내는 길갈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각각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40년 2) 네보산 3) 여호수아 4) 기적 5) 열 두 돌
- 6) 기념비를 세움 7) 길갈 8) 굴림, 벗김
- 9)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10) 할례
- 11) 과월절 12) 중지 되었다 13) 그곳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 14)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 15) “야훼 군대의 총 사령관”
- 16)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17) 개혁
- 18) 실제로 영적인 삶의 시작
- 19) 모세 - 두려워서 진리에 순종함, 여호수아 - 삶 속에서 진리가 싸워 나갈
- 20) 할례(순수해침에 대한 예식), 과월절(구원해주심을 기억함)

13

거룩한 땅의 분할

머리말

본문은 거룩한 땅의 분할 이전인 그 땅의 정복에 관한 줄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따른 세 가지 작전과 명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8장 1-10절

18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유산을 받지 못한 지파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겠느냐? 4. 당장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분할 받을 땅을 답사하여 지적도를 만들어 오게 하리라. 5. 그들은 그 지역을 일곱 뭇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쪽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요셉 가문은 그대로 북쪽 자기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6.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뭇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의 뭇을 결정해 주리라. 7.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과 어울려 한 뭇 받지 못한다. 야훼를 섬기는 성직자 직분이 그들의 뭇이기 때문이다. 가드와 르우벤과 므나쎄 지파 절반은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대로 요르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받았다.”

8. 이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지적도를 만들려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너희는 그 지방에 가서 답사하며 지적도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 뭇을 결정해 주리라.” 9. 그들은 길을 떠나 각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그 곳 성들을 일곱 뭇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의 뭇을 결정하려고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뭇 한 뭇 떼어 주었다.

교리 요점

- * 제비뽑음이란 우리가 뭔가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추첨이라 할지라도 기회나 우연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통제된다.
- *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받게 된다.
- * 천국적인 인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적을 우리 속에서 몰아 내야한다.

해설

여호수아는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데 세 가지 작전을 펼쳤다. 첫 번째 작전은 그 땅의 중심부에서 있었다.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천국적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나 거짓 사상들과 맞부딪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자아사랑이 들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사랑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의 작전은 남부에서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자아사랑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잘못된 욕구들과 싸워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작전은 북쪽에서 있었는데, 이는 우리속의 지성이 거짓사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똑바로 잡는 일이다. 사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한 땅 내의 많은 적들을 건드려 보지도 못한 채 유보해 버린 것처럼 자신 안에 천국적인 인격을 전적으로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을 지배할 충분한 실력을 갖출 수 있으며, 천국적인 질서에 자신의 삶을 정착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본문과 더불어 그 앞장과 뒷장이 말해주는 각 지파에게 거룩한 땅이 분할되는 사항에 내포된 요지이다.

궤를 안치한 성막이 거룩한 땅의 중앙에 있는 실로에 세워졌다. 이는 평화를 알고자 하면 계명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로란 “평화”라는 뜻이다. 레위지파에게는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성읍들이 그들의 소유지로 주어졌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이 우리가 하는 매사에 침투되어 있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임무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관장하는 것이었음은 앞서 배운 성경의 내용을 상기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모든 지파들에게도 나뉠대로의 상속이 주어졌다. 즉,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이 천국적인 인격의 완성을 위한 것에 방향을 맞추어 각 나뉠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거듭남이 우리의 할당된 몫을 행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거저 가져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의 협력에 의해서만 성취되며, 그 협력은 생각 속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 속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안의 적을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장소는 그분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상속물로 할당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주님에게서 배우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분의 도움을 언제나 구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을 기어 다니는 숨어있는 악들에 맞서 자신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속의 악은 미리 발견 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악이 뭔가 사고를 저지르는 때에야 비로소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악을 사전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부주의해지고 자아 만족에 빠지게 될 때 우리속의 악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913항: “야곱의 열 두 아들은 열 두 개의 일반적인 것 또는 기본적인 것을 기술한다. 이를 수단으로 거둬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동안 인간에게 영적이거나 천적인 것들이 전수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둬나갈 때 또는 교회를 만들게 될 때에 (즉,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또는 육적인 것에서 천국적으로) 다양한 상태를 통해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통과되는 다양한(일반적인) 상태들이 ‘열 두 아들’ 후에는 ‘열 두 지파’로 표현된다. 이런 이유로 ‘열 두 지파’는 사랑과 믿음 내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일반 사항들은 특별한 것들이나 개별사항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에 관계되어 생산된다. 인간이 거둬나갈 때 내적인간은 외적인간과 결합하고, 내적인간 속의 선과 진리는 외적인간 속의 선과 진리와 결합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선과 진리로부터 진정한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두 인간은 어떤 수단 없이는 결합될 수 없다. 수단이란 이쪽에서 파생된 어떤 것과 다른 쪽에서 파생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느 한 쪽에 동의하는 만큼 다른 쪽도 이에 응하는 결과로부터 수단이 발생된다. 이런 수단들이 ‘하녀’가 의미하는 바다. 그래서 내적 인간 쪽의 수단은 ‘라헬의 하녀’로, 외적 인간 쪽의 수단은 ‘레아의 하녀’로 의미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몇 개의 작전으로 거룩한 땅을 정복했는가?
- 2) 이 작전은 어떤 순서로 수행되었는가?
- 3) 첫 작전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 4) 그 땅의 모든 적은 정복되었는가?
- 5) 항구적인 성막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 6) 실로란 무슨 뜻인가?
- 7) 누가 그 땅의 분할 경계를 그렸는가?
- 8) 각 분할 지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 9) 제비를 뽑을 때 그 결정은 실지로 누가 하는가?
- 10) 그 땅의 중심부는 어떤 지파에게 돌아갔는가?
- 11) 요셉의 두 아들은 왜 이 땅을 분할하는 데에 자격이 있었는가?

- 12) 요르단 건너 지역에는 어떤 지파가 정착했는가?
- 13) 그 땅의 남부는 어떤 지파에게 할당되었는가?
- 14) 갈렙에게는 어느 성이 주어졌는가?
- 15)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할 해주지 않았는가?
- 16)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7) 열 두 지파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3 2) 중심부-남부-북부 3) 예리고, 아이, 기브온 4) 그렇지 않다
- 5) 실로 6) 평화 7) 각 지파의 세 사람들이 지적도를 만들
- 8) 추첨 9) 주님 10) 요셉, 베냐민, 단 11)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
- 12) 르우벤, 가드, 므나쎄 반쪽 13) 유다, 시므온 14) 헤브론
- 15)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 16) 48개의 성읍 17)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자질들
- 18) 우리 삶의 정착된 부분의 중심에 예배를 놓아야 한다는 것

14

판관 삼손

머리말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본문은 삼손이란 인물의 부주의함과 자만심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꾸준히 필요함을 예증해준다.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음과 더불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의 의미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를 행하는 것에 행복이 있음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4장

14장: 1. 삼손은 담나로 내려 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2.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담나에 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두고 싶은데 얻어 주십시오.” 3.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였다. “네 일족이나 네 겨레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 주십시오.” 4.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5. 삼손이 담나로 내려가서 담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오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6. 그 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리 덮쳐 삼손은 양 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7. 그 여인에게로 내려 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8.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9.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10.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삼십 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12.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렛 동안 생각해서 맞춰 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웃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지. 13. 그러나 맞춰 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웃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 보라고 하였다. 14.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5.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15.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올라메었다. “네 신랑을 피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16. 삼손의 아내가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그는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렛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레째 되던 날 털어 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알려 주었다. 18. 이레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29.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는 19.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 가 거기에서 삼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 왔다. 20.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교리 요점

- * 삼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한다.
- * 말씀의 힘은 말씀의 글자에 있다.
- * 블레셋이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라 살고자 함을 소홀히 다루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소위 “믿음만으로”라는 것에 해당된다.
- * 가슴속에서 사랑이 떨어져나가면 어떤 실질적인 힘도 없게 된다.

해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의 이름이 제기되면 그의 강한 힘과 델릴라의 배신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손을 알고는 있으나 그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를 읽지 않아서 그의

힘이 주님께 순종할 때만 있어졌다는 것과 그가 욕망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하찮은 델릴라의 간계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임을 모르고 있다.

판관기서의 마지막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전한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한다. 이 말은 꽤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 주님의 진리로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들을 검토해 보지 않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핑계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왕만을 모셔야 하며,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가 그분의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의 법을 자신 속에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질서가 초래되어 오로지 곤란과 다툼만이 있게 될 뿐이다.

삼손은 나지르인이었다. 그가 나지르인이라는 것은 그가 하느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분 되었다는 것이다. 나지르인으로 들어나는 첫 번째 특징은 머리털을 결코 깎지 않는 것이었다. 주님은 삼손이 이를 준행하고 있는 한 그와 함께 하시며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한 힘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승리는 사자를 때려잡는 것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뒤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꿀이란 시험에서 승리한 후 맛보게 되는 행복을 의미한다.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삼손처럼 사자를 잡을 수 있는 힘을 받은 경험과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삼손이 내놓은 수수께끼에 대한 답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힘은 주님의 진리의 가장 외부적 형체인 말씀의 글자를 준행하는 데에 존재한다. 이 모습이 본문에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털에 있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49항: “신성한 진리의 권능은 특별하게는 악과 거짓, 즉 지옥에 대항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싸움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온 진리가 담당하게 된다. 더구나 주님은 인간 속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재구성되고 거듭나는 것, 즉 지옥으로부터 꺼내져 천국으로 입문하는 것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은 진리를 수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권능이 진리의 말단적인 것들에 있음이 유대교회 내의 나지르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지르인이었고, 그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말씀에서 ‘머리’가 의미되는 바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나지르인의 규칙이 제정된 까닭과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었던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머리’는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천사와 인간들이 주님에게서 받는 천국적인 지혜를 의미한다. 따라서 ‘머리 부분의 털’은 말단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천국적인 지혜와 말단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성한 진리의 권능 또는 말씀속의 권능이 글자적인 의미 안에 존재하는 까닭은 거기에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왕국 속의 천사들과 지상의 사람들이 더불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2)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3) 그들이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삼손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가?
- 5) 그가 장차 어떤 신분이 된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해졌는가?
- 6) 나지르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7) 삼손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가?
- 8)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 9)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가 처음 블레셋 여자에게 갈 때 드러난 그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 11) 그는 두 번째 방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 13) 그 이후의 삼손의 삶과 죽음은 어떠했는가 ?
- 14) 블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6) 삼손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을 잊었다 2) 적들이 봉기했다 3) 관관들 4) 나지르인
- 6) 머리털을 깎지 않음 7) 불레셋 8) 머리털 9) 여인, 자만
- 10) 사자를 죽임 11) 꿀
- 12)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 13)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졌다
- 14)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은 자
- 15) 말단적인 것들에 있는 권능 16) 행복은 투쟁으로부터만 비롯된다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

머리말

먼저 사무엘 이전의 관관들과 관관인 사무엘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8장

8장: 1.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관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잇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4.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 가 5.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6.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7.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너를 배척하는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온 이후 이날 이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일러 주었다. 11.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 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가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2.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13.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14.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 먹고 17. 양떼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18. 그 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 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19.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건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20.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 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22.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교리 요점

* 주님은 각 상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 *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과정을 여실히 보여 준다.
- *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원리들을 이해하고자 함은 당연한 바램이다. 그러나 이런 바램의 혜택을 즐기려면 그 뒷면인 어려운 점을 반드시 인식해 두어야 한다.
- * 스스로 어떤 것을 해보고자 하는 선택에는 주님을 거절하는 면이 약하든 강하든 언제나 있게 된다.

해설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함은 앞서 공부했던 판관시대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런 백성들의 상태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 땅의 적들과 타협점을 모색해 가도록 유도했다. 결국 그들은 적들에게 짓밟히는 고난을 체험하고 말았다. 이때마다 비로소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한 이들, 즉 판관들이 들어 세워졌는데, 마지막 판관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의 부모에 의해서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되어 있었고, 그 약속대로 늙은 대성직자 엘리의 감독하에 실로의 성막에서 양육되었다. 주님은 그가 어렸을 당시 한밤중에 그를 부르셔서 엘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 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써 그가 한 모든 말이 그대로 이뤄지게 하였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따라서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은 전투지도자로서의 판관이 아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판관이었다. 또한 그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인정되었던 판관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가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곤 하였다.”라고 성서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첫 절에서 전하는 바대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제 잇속만 차렸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변 나라들의 방법을 상당히 좋게 여겼다는 말이다. 당연히 사무엘은 이 요청에 불쾌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야훼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하고 명하심과 더불어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알려주도록 하라고 분부하셨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이 계시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고 성경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 상황이 바로 본문에서 사무엘을 주님의 예언자로 인정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중요하게 여겼듯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요구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즉,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적으로 보여 주는 것들이 없고 당장 성취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길 때 그리고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에 그대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하게 부각시켜 줄 어떤 대단한 원리를 원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본문의 표제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담고 있는 의미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 미래의 향방을 어떻게 이끌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뿐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 곤경에 대해 경고 해주시며, 그 선택으로 인한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015-10, 11항: “‘왕’은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님의 왕 또는 제사장이라고 불릴 때의 내적 의미에 있는 사항들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왕 혹은 제사장으로 표현된 주님에 관한 사항으로부터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왕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뜻하고 제사장은 그분의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 진리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형태는 모든 이를 지옥으로 이르게 질책한다. 그러나 선으로부터의 통치형태는 모든 이를 천국으로 들어 올린다. 그런데 왕이 진리를 표현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는 아주 불쾌한 것으로서 견책을 자청하게 된다. 진리 자체만으로 볼 때의 진리의 본성은 왕의 권리가 기술된 사무엘상 8장 11-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사무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모세 시대 때에도 이뤄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치레가 아닌 선으로부터 존재하는 순수한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명령되어진 것이 다 (신명기 17:14-18). 그리고 그들이 추론이나 기억속의 지식 같은 것으로 순수한 진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도 주어졌다. 이런 사항은 모세에게 주어진 왕에 관한 지침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의미를 글자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적 의미에 포함된 몇 가지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왕’ 또는 ‘왕도’는 오직 진리를 표현하거나 의미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인가?
- 2) 그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 3) 사무엘이 어릴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는가?
- 4) 사람들은 사무엘이 예언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5) 사무엘과 다른 판관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6)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인가?
- 7) 그가 고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만족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 8) 백성들은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 9)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반겼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이 무엇 같다고 말했는가?
- 12)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을 바꿨는가?
- 13)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실로 3) 엘리 4)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5) 종교적 지도자, 전 백성이 지도자라고 인정했다 6) 라마 7) 자기 아들에게 판결하게 했다 8) 왕 9) 반기지 않았다
- 10) 왕을 세워 주시오 11) 거친 감독 12) 바꾸지 않았다
- 13) 우리 삶을 통치하는 진리들 14) 전체적 측면에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

머리말

사울의 기름부음, 제비로 뽑혀진 사울, 사울의 용모에 흡족해한 백성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첫 변절에 관한 10장 8절과 13장 8-1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5장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3.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젓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4. 그래서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델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이십 만이었고 유다측에서도 일만이 가담했었다. 5.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5. 켄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대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켄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7.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월라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 가며 쳤다. 8. 그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9.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군은 아각 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 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 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 버렸다.

10. 이 일이 있은 후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12.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다. “사울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 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 갔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하며 인사를 하였다. 14.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하고 물었다. 15.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하고 변명하자 16. 사무엘이 “그만하십시오. 지난밤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야훼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18. 야훼께서 그대를 출정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족을 없애 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켜라’고 하지 않으셨소?

19.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 왔습니다. 21.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 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2.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23.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장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요.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요.”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25.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 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26.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 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27.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28.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29.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30.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 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31.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32.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33.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34.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35.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여 마지않았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하신다.
- * 말씀에 관한 우리의 첫 이해성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에 기초를 둔다.
- * 주님을 믿는다는 함은 설사 우리의 판단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 * 우리의 유전적인 자아 사랑으로부터 많은 생각들이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

해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국가 형성의 시대를 접하게 된다. 우리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세상적인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그들이 찾던 것이라고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첫 세 왕들, 즉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했으나 안전과 행복이 세상적인 권력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다.

사울은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이 뽑아 주셨는데, 이는 백성들이 사울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걸맞은 왕의 모습을 지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1장 23절에서 전하는 바대로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그를 부러워하게 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의 건장함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외관으로 쉽게 판단했던 것처럼 외적인 것을 더 중시하기도 한다.

사울은 젊은이들이 가진 건장함과 약점을 동시에 가졌다. 즉, 그는 용감하고 열성적이면서도 자만심으로 가득하여 경솔하고 성급했던 것이다. 그는 첫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마음이 바뀌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임을 알면서도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는 주님의 교훈을 정확히 실천하지 않았다. 본문은 사울의 불순종했던 행동과 그로 인한 그의 왕국의 결과를 보여준다. 아말렉 인들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적이였다. 이들이 르비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했을 때(출애굽기 17:8-16)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후르가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을 향해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적인 적으로 야기되는 시험에 저항하는 우리속의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선함이나 지혜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행해야 할 최선의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울처럼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 뭔가 유용한 것 같고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판단되면 포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신에게 올 고난의 뿌리에 도끼를 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뿌리란 다름 아닌 자아 사랑과 자기만족이다. 우리속의 이런 모습들을 비유의 언어로 본문 8절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이는 표제인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의 의미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593항: “내면의 악이란 인간에게 깊숙이 박혀 있는 악이다. 즉, 인간의 의지 부분에 있는 악으로서 생각 속 깊은 데에 자리하여 인간의 외적인 것들인 행동이나 언어 또는 얼굴로 추적당하지 않는다. 이 악 속에 있는 자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존경받을 만한 것 혹은 정당한 외형을 가진 것들 속에 악들을 감추거나 저장해두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이웃사랑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 속에 악에 관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들 속의 것이 악처럼 보이지 않도록 가려 놓는다. 또는 악 자체가 악처럼 보이지 않게 색칠하기도 한다. 그들의 삶의 큰 기쁨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거나 잘 감추어 놓으려고 시도할 때만 있게 된다. 이런 것이 내면의 악이라고 불린다. 이런 악 속에 있는 이들은 믿음의 진리를 공격하지 않고 믿음의 선들을 공격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패된 애착들을 수단으로 선한 생각들을 뒤집기 때문이다. 어떤 악들은 전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이블 지니들은 인간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고, 원기 왕성한 저항력이 인간에게 있을 때에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이 선한 소출을 생산하는 것에서 지쳐 있을 때 갑자기 덮쳐 인간을 굴복시킨다. 이상의 설명을 기반으로 아말렉으로 표현된 이들의 속성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적이라고 여호와로부터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계시록 설명」 제 395-3항: “‘예언자’란 말씀에서 온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상적 측면에서는 말씀에서 온 교리 속에 든 진리도 의미한다. 그들은 이러한 ‘예언자’의 의미 때문에 털이 많은 외투를 걸쳤는데, 이 외투는 말단 선상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첫 왕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떻게 왕으로 선출되었는가?
- 3)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됨을 기뻐했는가?
- 4) 그는 어느 영토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가?
- 5) 그가 두 번째 맞이한 적은 누구인가?
- 6) 그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 7)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는가?
- 8) 본문에서 사울에게 어떤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9)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적에 대하여 공부했는가?
- 10) 이 적과의 최초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11) 주님은 이 적을 어떻게 쳐부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가?
- 12)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13)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4) 어떤 징조가 발생했는가?
- 15) 사무엘은 아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아말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왕으로서의 사울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제비로 3) 키가 크고 힘이 세서 4) 요르단 건너 지역 5) 불레셋
- 6)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7)요나단 8)아말렉
- 9)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최초의 적이었다 10)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음으로
- 11) 완전히 파괴하라 12) 왕과 좋은 가축을 살려 두었다
- 13) 그는 왕국을 잃게 된다 14) 도포가 찢어짐 15) 사무엘이 그를 죽였다
- 16) 내면의 악에 기초한 거짓 17) 진리를 세상적으로 생각함

다윗과 예언자 나단

머리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라는 사무엘의 엄명이 떨어지게 함과 더불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다음 사울이 계속 왕위에 있는 동안 다윗의 생애는 사울과 겹쳐진다. 따라서 이 두 왕의 상이점과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12장 1-25절

1. 아훼게서 예언자 나단의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3.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4.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5.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6. 그런 인정 머리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7.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8.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아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 네가 이렇게 나를 알고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11.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주리라. 밝은 대낮에 네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12.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13.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알아보셨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16.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17.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18. 아기는 마침내 칠 일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기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20.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 와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21.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잠수시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 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22.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있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 올 수는 없지 않소?”

24.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아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25. 아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오직 우리의 선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슬픔을 허용하신다.
- * 성서의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비유이다.
- *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타인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 *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수준의 선한 상태에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해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다. 주님은 사울이 불순종하자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셨다(사무엘상 13장). 당시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다. 그가 온 백성의 앞에 왕으로 군림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아주 오랜 후의 일이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거룩한 땅의 남쪽 지역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다윗은 전 백성에 의해 왕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칠 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다. 이후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궤를 안치했다. 그는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적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그 나라의 국경은 전보다 훨씬 확장되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모든 것을 잘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며 자칫하면 시험에 빠지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간음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깨트리면서 자신의 드높은 지위가 그로 인한 처벌까지 면제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사무엘이 죽은 후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도 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예언자인 것이다. 본문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를 보여준다. 나단은 다윗에게 간단한 비유 하나를 말해주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자신의 행함에 관한 것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곧장 비유속의 부자를 질책했다. 그러자 나단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에게 말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의 죄와 과오가 말씀 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된다. 반면 우리가 다윗과 유사한 죄를 행하고 있으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각토록 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준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결과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은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첫아들의 죽음으로 의미된다. 즉, 악은 선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누구든지 악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계명의 어느 하나를 쉽게 깨트릴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옛날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 의해 주어진 계명 그대로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801-10803: “왕권 자체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다. 왕권이 왕국의 법에 따라 집행되는 데에 존재하고 왕국의 법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왕은 슬기롭다. 반면에 법이 자신의 아래 있다고 간주하는 왕, 즉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왕은 현명치 못하다. 법이 자신의 아래 있다고 하는 자, 즉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하는 자는 왕권을 자기 속에 있게 만든다. 그는 자신을 법이라고 믿으려하거나 정의로운 법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는 신성한 것, 신성아래 자신을 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신성을 돌리게 된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3) 그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4)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 5) 그는 무엇 때문에 사울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가?
- 6)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가?
- 7) 다윗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는가?
- 8) 그는 얼마동안 그곳에서 통치했는가?
- 9) 그는 전 국토의 왕이 된 후 어떤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는가?
- 10) 그가 그 성에 모신 아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 11)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한 업적은 무엇인가?
- 12) 그는 어떤 범 죄를 저질렀는가?
- 13) 주님은 그를 견책하도록 누구를 보냈는가?
- 14) 나단은 어떤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는가?
- 15) 다윗은 비유속의 사람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 16) 그런 다음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7) 다윗은 어떻게 나단의 질책을 받았는가?
- 18) 왜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먼저 말했는가?
- 19) 사울과 다윗의 상응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베들레헴 3) 목자 4) 사무엘 5) 하프연주자였기 때문
- 6) 자갈과 돌팔매로 7) 헤브론 8) 7년 9) 예루살렘 10) 궤
- 11) 주위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12) 바세바와 정을 통했다 13) 나단
- 14) 부자와 가난한자, 암컷 새끼 양 15) “죽일 놈”
- 16) “네가 그 사람이다” 17) 회개했다 (시편 51편 참조)
- 18) 공정한 판단과 자신의 생명을 보전받기 위함
- 19) 사울 - 진리에 대한 자연적 수준에서의 생각,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 수준에서의 생각

솔로몬의 최후

머리말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로써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의 뜻, 다윗의 통치와 그의 통치의 상이점, 그의 지혜와 영예 그리고 성전건축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그가 우상숭배로 전락한 원인이 아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내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여로보암이 받은 겹옷 조각과 사울이 찢은 사무엘의 도포조각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사무엘상 15:27-28).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1장 1-13절, 26-43절

11장: 1. 솔로몬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2. 아훼게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꺾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3. 솔로몬은 무려 칠백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 드는 여자가 삼백 명이나 되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4.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아훼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솔로몬은 시돈인들

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6.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선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7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8.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9.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다.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으며 10. 그 때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11.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이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 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쫓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쫓게리라. 13. 그러나 이 나라를 쫓게어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27. 그가 반기를 든 경우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28.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29. 한번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들이 있게 되자 30.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열 두 조각으로 찢었다. 31.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열 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리라. 32.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33.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 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34.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35. 내가 장차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 나라를 쫓게어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36.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37.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38.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39.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 두지는 아니하리라.”

40.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삭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41.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42.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3.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악과 거짓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도 그분의 손이 닿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신다.
- * 말씀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손이 닿도록 씌어져 있다.
- * 진정한 선행은 만인에게 뺏혀나가지만, 선과 악에 똑같이 뺏혀 나가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본문이 의미하는 비는 이 세상의 누구도 선하고 지혜로워서 시험을 초월하여 죄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 의지로 천국적인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 삶을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경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감으로서 이러한 삶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속의 더 깊은 악들을 더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악들이 때로 우리에게 곤란과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대한 표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온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부유하도록 축복을 받았으며,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로써 주님의 지시 하에 아버지 다윗에 의해 선택되어져 다윗이 죽기 전 왕위에 등극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굳이 싸워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가 적들을 모두 정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통치는 평화와 영예만 있었을 뿐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솔로몬이란 이름조차도 “평화”라는 뜻이다. 그는 처음 보좌에 올랐을 때 젊고 겸손함과 더불어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하여 주님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 지혜를 받았는데, 이런 지혜는 결코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그에게 큰 부를 더해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 다윗처럼 주님의 법에 복종하기보다 그 법 위에 자신이 군림한 것처럼 느꼈다. 이 느낌은 성공과 번영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쳐야만 하는 큰 시험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실례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시험은 흔한 것이다. 하지만 본과는 이런 시험 속에 든 미묘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우리의 외적 환경조건인 부와 권력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것에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쟁취해야할 가장 높은 목표는 천국적인 인격이다’라는 것에는 이론적인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이 목표는 재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조건들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천국적인 인격이라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이웃의 사랑, 즉 주님의 영을 자기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예를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 이른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시험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솔로몬이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말씀의 글자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여 일이 터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이 시험에 노출되면 그 “왕국”이 우리들로부터 거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 제 245항: “솔로몬에게는 이상승배를 하도록 허용되어졌다. 이렇게 된 까닭은 그가 만방에 있는 다양한 종교와 더불어 주님의 왕국 또는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국가들과 더불어 구성된 교회는 표징적인 교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심판과 율례는 교회속의 영적인 것들을 표현했다. 백성들 자체는 교회를, 그리고 왕은 주님을 표현했는데, 다윗은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그리고 솔로몬은 승천하신 후의 주님을 표현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표징이 되도록 솔로몬에게 영화와 장엄함을 나타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지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며 성전도 짓도록 해 주셨다. 게다가 솔로몬이 많은 국가의 예배를 허용함으로써 그 예배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표현된 것이다. 칠백 명이라는 그의 아내들과 삼백 명이 되는 그의 첩들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아내란 교회를 그리고 첩이란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3) 이 왕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 4) 주님은 그 요구에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 5) 그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6) 그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 7) 그는 그 외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성취되었는가?
- 10) 솔로몬의 왕국 중 몇 지파를 그의 아들이 다스렸는가?
- 11) 누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 12)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 13) 누가 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가?
- 14) 그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었는가?
- 15)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 16)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 17)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8) 솔로몬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솔로몬 2) 솔로몬 3) 지혜 4) 부와 명성 5) 성전 6) 많은 외국여자와 결혼했다
7) 우상숭배 8) 나라를 잃는다 9) 성취되지 않았다 10) 1 1/2지파 11) 여로보암
12) 솔로몬의 신하 13) 아히야 14) 옷을 찢었다 15) 그를 죽이려 했다 16) 이집트
17) 영혼의 평화 18) 악을 소홀히 취급함 또는 악에 대해 변명함

19

엘리사와 나아만

머리말

우선 열왕기상 12장을 읽고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 없이 괴롭힌 시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5장

1.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환자였다. 2.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3.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 주실 텐데요.” 4.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해서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5.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 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 금 육천 세겔,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러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8.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9.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10.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와 깨끗하게 될 것이요.” 11.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 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12.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13.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일곱 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돌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 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16.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야훼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시겠으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8. 그러나 한 가지 야훼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야훼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9.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20.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 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 오고 말겠다.” 21. 이렇게 생각하고 게하지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22. 게하지는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에비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보내 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23.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하며 은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 부하 두 사람에게 돌려 게하지 앞에 세워 보냈다. 24. 게하지가 집 있는 언덕에 돌아 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낸 후 25. 들어 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소인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 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27. 너와 네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옮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교리 요점

- * 오직 주님만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 * 진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
- *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내적인 악들을 치료할 수 없다.
- *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해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음을 경험을 통해 쉽게 납득하게 된다. 우리는

보람 있게 살아보겠다고 작심하지만 과거부터 지녀왔던 잘못된 사고로 인해 남에게 선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심정과 지성 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약 이것들이 제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강함과 평화는 결국 쇠퇴하고 만다. 이것은 솔로몬이 죽은 뒤 분열되는 왕국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두 왕국들 중에서 보다 더 따뜻한 남쪽의 왕국은 마음을, 북쪽의 왕국은 이해성을 표현한다.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불렸고,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며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곳에서의 성전의 예배를 중심으로 삼았다. 반면에 북쪽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하라고 두 개의 금송아지 상을 세웠다. 그를 뒤 이은 후대 왕들 역시 이러한 우상숭배를 계속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오랫동안 양육되어졌던 주님을 예배함으로 쉽게 향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이해성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추론이 있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쉽게 등을 돌리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위대한 두 명의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들에게 보내셔서 견책하고 경고하도록 해 주셨다. 두 예언자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언자란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했던 것처럼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기독교 밖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리아의 나아만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선한 이방인이다. 그는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것은 선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깨닫게하고자 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먼저 나아만은 단순히 요르단 강에서 몸을 씻음으로써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자기 나라의 강물이 그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명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세상의 추론보다 더 낫다고 말해줄 때 있게 되는 우리의 자연적인 첫 반응이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자 엘리사의 하느님을 진심으로 인정했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75-18항: “ ‘시리아의 문둥병자 나아만’은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왜곡시킨 사람들을 의미함과 더불어 그것을 표현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왜곡시킴을 의미하고, ‘시리아’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르단 강물’은 교회를

소개하는 진리들을 의미하고, 교회란 말씀으로부터 온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요르단 강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첫 경계이고, '가나안 땅'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요르단 강물'은 소개하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소개하는 진리란 말씀에서 오는 선과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지식들이다. 요르단 강물이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 물에 일곱 번 씻도록 명령되었다. 이는 왜곡된 진리들에서 순수해짐을 의미하고, '일곱 번'이란 충분함을 뜻한다. 거룩한 것들, 즉 진리는 신성함 등을 의미한다. '일곱 번'이 이런 의미를 가진 까닭에 '그의 몸은 새살이 돋아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새살이 돋는다는 것은 영적 삶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가 신성한 진리를 통해 거듭나는 이들이 갖게 되는 삶이다.”

질문 정리

- 1)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2) 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는가?
- 3) 그 송아지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
- 4) 주님은 어떤 두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냈는가?
- 5) 본문에서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6)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7) 그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 8) 누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는가?
- 9)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10) 나아만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엘리사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 13) 엘리사의 시종은 무슨 짓을 했는가?
- 14) 그의 벌은 무엇인가?
- 15)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요르단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는다고 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움 2)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임
- 3) 베델, 단 4) 엘리야와 엘리사 5) 시리아 6) 나아만 7) 문둥병
- 8)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소녀 9) 요르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 10)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르단강보다 더 낫다 11) 치료되었다
- 12)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3) 보상을 원했다
- 14) 문둥병자가 됨 15) 마음이 분리되었음 16)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라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머리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두 국가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던 반면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귀환하기도 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재건되었음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4장, 25:1-12, 예레미야 21장

열왕기하 24장: 1. 여호야קים이 다스리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 와서 여호야קים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삼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2. 야훼께서는 바빌론 침략군과 시리아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런 일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므나שה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다. 4.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저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야훼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5. 여호야קים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6.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 이집트왕은 이집트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빌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8. 여호야킨은 십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나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타라고 하였다. 9. 여호야킨은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10. 그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 와서 포위하였다. 11.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12. 일이 이쯤 되자 유다왕 여호야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바빌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빌론 왕 제팔 년이었다. 13.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론 왕은 야훼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 갖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14.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일만명, 그리고 은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 두었다. 15. 그는 여호야킨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16. 그리고 유력자 칠천 명과 은장이, 대장장이 천 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17. 바빌론 왕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파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18. 시드키야는 이십 일 세 때 왕위에 올라 십 일 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19. 시드키야는 여호야קים이 했던 것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20.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로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25장: 1. 시드키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왕 구년 시월 십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2. 이 포위는 시드키야왕 십일 년까지 계속되었다. 3. 그 해, 성에 기근이 흑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사월 구일에 4.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다 왕은 이를 보자, 바빌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의 전 호위병과 함께 밤을 도와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라는 성문으로 빠져 나가 나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 바빌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예리고의 들판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6. 바빌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빌론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7.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데서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 구년 오월 칠일, 바빌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 와 9.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성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10.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 버렸다. 11.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왕에게 항복해 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 갔다. 12.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예레미야 21장: 1. 시드키야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아 성직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던 것이다. 2.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걸어 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야훼께 빌어 주시오” 3.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야훼께 받은 말씀을 일러 주었다. “당신들은 시드키야왕께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왕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읍 한 가운데다 모아 놓으리라. 5.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6. 이 도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한 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7. 똑똑히 말하여 둔다. 이렇게 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도 남은 유다 왕 시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면, 그들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8. 당신들은 또 이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어 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중 하나를 택하여라. 9.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군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10. 내가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이 도읍을 잘 돌보아 줄 생각이 없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읍은 바빌론 왕의 수중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11.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12.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껄뻐한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 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계곡을 굽어 보는 예루살렘아,

별관에 우뚝 솟은 바위야!

내 말을 들어라.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달려드느냐?

이 깊은 곳으로 누가 감히 쳐들어 오느냐?’하고 말한다마는,

나는 이제 너희를 치리라.

나는 너희의 소행을 따라 벌하리라.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수풀궁에 불을 질러

둘레를 온통 태워 버리리라.”

교리 요점

- * 주님은 각 개인의 의지에 반대되어서는 구원하실 수 없다.
- * 예언서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 이해성이 진리에서 거짓으로 변화되면 마음속의 선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해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뒤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주 되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복음서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더 배우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유다왕국 또한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선한 왕인 히즈키야는 주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분은 기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군대의 대부분을 궤멸시켜 주셨다. 그래서 남은 아시리아 군은 그들의 나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에 히즈키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바빌론 왕의 사절단을 환대하면서 궁내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에 관하여 “바빌론 왕이 결국 나라의 모든 보물을 거두어 갈 것이며 히즈키야의 후손들 역시 장래 바빌론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했다.

약 백 년이 지난 후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본문은 그것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바빌론의 세력이 우세해지면서 아시리아를 흡수했고, 그들의 지배권은 이집트까지 확장되었다. 히즈키야의 왕위를 물려받은 왕 중 요시아만이 선왕이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말기에 살았었다.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가 그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는 유다왕국의 파국이 이미 임박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에도 언제나 끝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 누구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삶의 결과가 단 번에 닦아지지 않음을 깊이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선택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만든 것만큼 저 세계로 갈 때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다. 왕가와 재주 있는 모든 사람이 끌려갔고, 예루살렘과 성전도 파괴되었다. 남겨진 백성들인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겸손한 자들을 표현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1029항: “다니엘서 2-7장의 구절로부터 알 수 있는 사항은 바빌론 또는 바벨이란 은 세상을 뒤엎겠다는 지배욕, 다시 말해서 천국과 주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지배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바빌론이 되어감에 따라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선과 믿음에서 비롯된 모든 진리가 황폐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과 이렇게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가르침을 얻고자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국가 자체는 우상 숭배국가들 속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천국과의 교통을 가능하도록 한 영적인 것에 대한 표현들인 각종 율법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아시리아왕의 수중에 넘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유다 왕국에도 발생했다. 그들은 믿음 속에 든 선과 진리를 표현한 모든 규정, 판결 그리고 율법 등을 다른 것과 뒤섞거나 모독했다. 이리하여 선과 진리가 그들에게 남겨지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교회는 차차 바빌론이 되어가서 그 나라 왕과 왕자와 대부분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 심지어는 집기들까지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수중에 넘어갔던 것이다. 게다가 성전 자체가 불태워지고 말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말씀이 있었던 곳 곧 교회가 있었던 곳에서 그분을 나타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칠십 년 후 포로들의 귀환이 허용되었고 성전도 재건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는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제외하고 어떤 교회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는 주님 자신이 그 나라에 대해 언급한 여러 구절들, 즉 그들이 그분을 영접한 태도 등에서 엿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은 다시 파괴되었고, 성전 또한 다시 불태워지고 말았던 것이다.

질문 정리

- 1)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가?
- 2)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이 적에 대항해서 유다왕국은 왜 오래 버틸 수 있었는가?
- 4) 유다의 선한 왕들은 무엇을 추진했었는가?

- 5) 어떤 국가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6) 유다의 어떤 왕 시절에 바빌론 사절단이 내왕했었는가?
- 7) 어떤 예언자가 이 사절단의 결과를 예언했는가?
- 8)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8) 이 마지막 왕은 어떤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했는가?
- 10)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2) 어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 13)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 14)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시리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그 땅의 가난한 자”는 누구를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아시리아 2) 영원히 끌려갔다 3)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기 때문 4) 개혁 정치
- 5) 바빌론 6) 히즈키야 7) 이사야 8) 시드키야 9) 예레미야
- 10)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11) 눈이 뽑혀 바빌론에 끌려감
- 12) 왕자와 용사 그리고 대장장이 등의 유력자들 13) 가난한 자 14) 분단된 심정과 지성
- 15) 세상적 추론 16)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
- 17)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겸손한 자

말씀에 관한 시편

머리말

제 2반은 시편을 위한 배경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본다. 이 시편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은 제 1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지 있는데, 이 요점을 주로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시편 119편

1.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2.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3.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가는 사람.
4.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5.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균균하게 살도록 해 주소서.
6. 그 명령을 낱낱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7.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리이다.
8.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10.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11.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12. 야훼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뒤풀이했습니다.
14.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15.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 주신 길을 똑바로 걸오리이다.
16. 당신 뜻을 따름이 나의 낙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19.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20. 자나깨나 당신의 결정을 갈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사옵니다.

21.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22. 내가 당신의 언약을 지켰사오니
이 모욕과 멸시를 벗겨 주소서.
23.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좋은 당신의 법규를 명상합니다.
24.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이옵니다.
25.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26. 내가 살아 온 길 보이매 응답하셨사오니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27.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 주소서.
주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괴로와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29.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30.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사오니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31. 야훼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
33. 야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34.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35.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36. 내 마음을 잇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37.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38.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39.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그 몸서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
40.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사오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41. 아뢰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당신 구원을 내려 주소서.
42. 당신 말씀 굳이 믿고,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응수하리이다.
43.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44. 당신 법을 언제나
길이길이 끝까지 지키리이다.
45.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사오니
내 달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46.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
47.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48.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

49.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50.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희롱하여도
나는 당신의 법에 버티고 굴치 않았사옵니다.
52.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오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53.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올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54. 나그네살이하는 이 내 집에서
당신 뜻을 노래로 따르리이다.
55.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56.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57. 야훼여 나의 분깃은,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58. 당신 얼굴 웃음 띠도록 내가 몹시도 힘쓰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붙쌍히 여기소서.
59. 지금까지 걸어 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60. 빨리빨리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61. 악인들의 올가미가 내 주위에 두루 있어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62. 공정하신 그 판결들,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기도 드립니다.

63.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64. 아훼여,
당신의 사랑이 땅에 넘치웁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5. 아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였사웁니다.
66.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이 믿사오니
옳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67. 죄 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빛나갔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68.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이여,
당신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9. 교만한 자, 거짓으로 나를 피어도
마음을 다 쏟아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은 마음에 기쁨기 끼었으나
나에게 미각은 당신의 법이웁니다.
71.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 줍니다.
72. 당신께서 가르치신 법이야말로
천만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을 주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서.
74.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둔 이 몸을 보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기뻐하리이다.
75. 아훼여, 당신의 판결은 옳사웁니다.
나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웁니다.

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
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에게 오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하소서.
80. 이 마음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나에게 위안을 주시렵니까?
83. 나 비록 연기 속의 가족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
84. 당신의 종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몸을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팠사옵니다.
86. 당신의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버리지 않으리이다.
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89. 아뢰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

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사옵니다.
91. 모든 것이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사옵니다.
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93.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 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
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 아오나,
당신의 계명들은 한 없이 넓사옵니다.
97.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98.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
99.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100.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화지리이다.
101.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102.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으리이다.
103.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104.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105.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106. 나 한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107. 야훼여, 나의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08. 야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109. 나의 생명 항상 내 손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110.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라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111.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112.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사오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113.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오며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읍니다.
115. 악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6.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소서.
나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117. 내가 기댔 지주 되어 주소서.
내가 살아나리이다.

- 나는 언제나 당신 뜻을 살피리이다.
118. 당신 뜻을 어기고 벗어나는 자, 모두 당신께서 얹어 버리시니
그들의 계산은 허황합니다.
119.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처럼 치우시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사랑하옵니다.
120. 나는 당신이 무서워 떨리우고,
당신의 판결이 이 몸은 두렵기만 합니다.
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사오니,
억누르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를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리이다.
126. 야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사오니
나서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걷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어 주소서.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137. 야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43. 우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145. 야훼여, 목청껏 당신을 부르오니 대답하소서.

- 당신의 뜻을 따르리이다.
146. 당신을 부르오니 구해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내가 지키리이다.
147.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148. 뜬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149. 야훼여,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판결로써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0.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음흉한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151.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오며
당신의 계명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52. 영원토록 맺으신 당신의 언약,
나는 옛부터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153. 당신의 법을 내가 잊지 않으리니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건져 주소서.
154. 고발당한 이 몸을 변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5.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 구원이란 당치도 않사옵니다.
156. 야훼여, 당신의 인자하심 한없이 크시오니
공정하신 당신의 판결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7.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은 당신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158.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배신들을 보고 내 마음 심히 불쾌하옵니다.
159. 보소서, 야훼여,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좋아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60. 당신의 말씀은 한 마디로 진실, 그것이오며
 당신의 공정한 판결은 영원하십니다.
 161. 권세자들이 나를 까닭없이 박해하오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162.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163. 거짓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당신 법을 좋아하고 실행합니다.
 164. 당신의 옳은 판결, 찬송하오니
 하루에도 일곱 번씩 찬양합니다.
 165.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166.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랐사오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67.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리이다.
 168.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 법령, 당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169. 야훼여, 이 울부짖는 소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170. 당신 어전에 나의 기도소리 이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건져 주소서.
 171. 당신 뜻을 당신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172. 당신의 법령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몸,
 손을 뻗으시어 도와 주소서.
 173.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174. 이 몸이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바른 판단 내리시어 도와 주소서.

175.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176.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율법과 예언 그리고 시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 * 주님과 천국의 결합은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 말씀에 관한 지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해를 줄 수 있고, 우리 삶을 바른길로 인도한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지식에 기반 한다.
- * 자아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은 선행이 아니다.

해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분을 순종함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정규적인 예배를 거절하여 그것을 뒤집었고, 그 대신 각종 지저분한 우상숭배에 빠졌다. 오늘날에는 신앙인들이 나무나 금속 따위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시험에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우리는 옛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과 비슷한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섬기게 되는 우상들은 돈, 출세, 쾌락,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 단순한 육체적인 편함 또는 위로감도 우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주님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 또는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변명들도 우상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본문의 시편은 매 절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다. 시편이란 찬양의 노래이다. 시편들은 원래 성전의 찬송이었다. 이 찬송집은 종종 다윗의 책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이 가장 많은 시편을 썼고, 레위기문의 일부를 특별히 지정해서 잘 훈련된 성악가나 연주자를 양성해서 성전의 예배에 참석시켰기 때문이다. 다윗 자신도 하프나 수금을 키는 연주자여서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의 말씀이 자신의 창작이 아닌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자기 입에 놓인 것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시편 119편이 알려주는 사항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 자신의 본성에 관한 것, 자신의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 의미에 관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관한 지식 없이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전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것을 규율하시는 근본 되는 법인 주님의 법에 대한 순종 없이는 어떤 안전이나 평화 혹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로 된 시편이다. 어떤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의 경우 각 문단의 머리에서 히브리어 철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철자는 22개의 히브리어 철자순서를 따라 있는데, 각 문단은 8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한 절은 각 문단을 이끄는 글자로 시작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38항: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는 영계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천사들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119편을 알파벳순서 곧 Aleph로 시작해서 Thau로 끝나는 순서로 기록했는데, 이 알파벳은 각 절의 첫 부분에 나타난다. 시편 111편은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나, 정확한 순서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렸고, 사라가 사라라고 불렸던 것이다. 이렇게 불려진 까닭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이해되지 못했는데, 이는 오직 신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은데, 이는 글자 ‘H’가 무한의 뜻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H’가 기음(aspirate)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독 종교」 제 234항: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함이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의 본질은 신성한 진리와 그 진리 안에 든 신성한 선이기 때문이다. 이 결함은

글자의 뜻을 수단으로 하여 이뤄진다. 그 이유는 말씀이 글자적 의미 안에서 완전을 이루고 거룩하며 권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 결합은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지는 않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와 진리를 지각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글자의 뜻을 수단으로 하여 천국의 천사들과도 교류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글자의 뜻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의미 속에 존재한다. 주님의 영적 왕국에 있는 천사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 안에 존재하고,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천사들은 말씀의 천적 의미 안에 거한다. 인간이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읽으면 이 두 가지 의미들에 의해서 말씀의 자연적 의미가 점차 변화되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고, 그 결과는 천사와 인간의 교류이기도 하다.”

질문 정리

- 1) 시편은 무엇인가?
- 2) 유대인들은 시편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3) 누구를 통해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 4) 다윗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5) 주님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가장 긴 시편은 어느 시편인가?
- 7) 이 시편의 구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8) 이 시편의 일반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 9)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상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 10) 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가?
- 11) 왜 우리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가?
- 12) 일부 시편들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인가?
- 13)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어떤 의미에 기초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노래 2) 찬송가 3) 다윗 4)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 5) 주님께 관해 예언되어 있다 6) 119편 7) 알파벳 8) 말씀
- 9) 매 구절마다에서 10)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 11)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 12) 주제에 대한 완벽한 요약에 담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 13) 글자 또는 글자적 의미

22

벨사살왕의 잔치

머리말

먼저 대 예언서의 일반적인 면을 살펴본 후 본문의 세부사항을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5장

5장: 1. 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2. 벨사살은 지나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 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3.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4.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5.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 쪽 왕궁 벽에 붙어 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6.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7.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향쳤다. 재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 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 주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8. 그러나 불러 나온 왕실 재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9. 벨사살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10. 그 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 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11.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12.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13.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여 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14.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15. 나는 재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16.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 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 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18.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19.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 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 나 영화를 빼앗기고 21. 세상에서 쫓겨 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22.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선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 지시기는 커녕 23. 오히려 하늘의 대주재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보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 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 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25. 저기 쓴 글자들은 ‘므네 므네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입니다. 26.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므네’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햇수를 세어 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27. ‘드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28. ‘브라신’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갈라 주신다.’는 뜻입니다.”

29.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30.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 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욕심 이세였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
- * 다니엘서도 영감 된 말씀중 하나이다.
- * 자아에 대한 확신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는 정반대된다.
- * 겸손은 선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설

성경내의 모든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예언이다. 그 이유는 말씀이 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자칫 유대인들의 역사로 보이는 부분에서조차도 우리의 삶, 우리의 약함, 시험에 관한 것과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유일한 근원이 주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예언자인 것이다.

성경에는 예언자로 불리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님을 대변하기 위해 뽑혀지고 준비되었던 자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이름조차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들의 예언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이름이 성경의 책으로 올라가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나단 등이 그 예이다. 구약성서 뒤쪽에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16권의 책이 있다. 그 중 앞의 네 권은 대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책들의 부피가 많기 때문이다.

대 예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이다. 이사야는 유다 왕 히즈키야 시대에 살았고,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이 바빌론에 정복되던 때에 예언했다. 에제키엘과 다니엘 역시 유다왕국 백성이었다. 에제키엘이 성직자 였던 반면 다니엘은 왕가의 일원이었다. 이 두 명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언이 주어졌고 쓰였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이 둘은 타국에서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실했다. 이리하여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로까지 부상했다.

바빌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과 위대해지려는 바램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함으로 인해 과멸로 인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뿔뿔이 파멸 앞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다니엘 5장은 바빌론의 패망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패망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벨사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집기들을 모독함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가 고집스럽게 나아가 재난으로 결과 될 것을 보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은 벽에 뭐가 쓰여 있는지 읽지도 못하는 자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니엘이 해석한 기이한 단어들은 갈대아어이다. 갈대아어는 바빌론의 통용어이었으나 히브리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 벨사살 왕은 벽에 글을 쓰려고 갑자기 나타난 손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될지라도 그 말에 의해 바뀌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있게 되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매일 쌓아져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격은 한 순간에 바뀔 수 없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 제 231항: “거룩한 것을 모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선행의 선과 믿음의 진리를 아는 이들 혹은 위의 사항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신성모독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씀을 모르는 이들과 불신앙으로 인해 말씀을 통째로 거절하는 이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음에 열거되는 분류 중에서 첫 분류에 해당될 뿐이다. 신성모독에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은 경미하고 어떤 것은 심각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대략 7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독은 말씀과 말씀에 관하여 혹은 교회속의 신성한 것을 가지고 농을 만드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두 번째 모독은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여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에 반대되게 살고 있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세 번째 모독은 말씀의 글자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악한 사랑과 거짓 원리를 확증하려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네 번째 모독은 입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것만을 말하고 역양이나 제스처를 써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애착이 있는 척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으로부터의 애착을 믿거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다섯 번째 모독은 신성한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바빌론과 갈대아는 말씀의 여러 곳에서 언급된다. 바빌론은 선에 대한 모독을 그리고 갈대아는 진리에 대한 모독을 의미하는 바, 이 둘 모두는 신성한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모독은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일곱 번째 모독은 신성한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에 따라 살다가 그 진리로부터 퇴보하여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는 신성모독 중에서도 가장 나쁜 행위인 것이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란 무엇인가?
- 2) 왜 주님은 예언자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내셨는가?
- 3) 기억나는 예언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5) 네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6)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7)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8)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9) 애가서는 누가 썼는가?
- 10) 애가서는 어디서 쓰여 졌는가?
- 1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에제키엘의 직책은 무엇이었던가?

- 13) 예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가끔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14) 주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주님은 어떤 이유로 다니엘에게 능력들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 16)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왔을 때 누가 그곳의 왕이였는가?
- 17)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인해 왕국의 통치자 자리에 올랐는가?
- 18) 다니엘과 더불어 연상되는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인가?
- 19)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누구인가?
- 20) 그는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
- 21) 무엇이 그를 겁나도록 했는가?
- 22)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인가?
- 23) 다니엘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24) 본문의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 25) 벨사살의 행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6)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을 대변하는 자 2) 견책, 경고 3)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등
- 4) 대 예언서는 길고, 소 예언서는 짧다 5)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
- 6)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시대 7) 유다왕국 말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 8)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9) 예레미야 10) 이집트
- 11) 포로중에, 바빌론 12) 성직자 13) 예루살렘 14) 꿈을 해석하는 능력
- 15)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 16) 느부갓네살 17) 꿈을 해석했다 18) 요셉 19) 벨사살
- 20) 성전의 집기들을 모독했다 21) 벽에 써진 글 22) 므네, 므네, 드켈, 브라신
- 23) 세었다, 달았다, 나누었다 24) 그날 밤에 25) 영적인 지식을 이기적인데 사용함
- 26) 말씀으로부터 온 심판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

머리말

먼저 유다왕국이 정복당하는 역사적 시점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1-5장까지를 재고해 본다.

성서 본문: 다니엘 6장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욕심이 세었다. 2. 다리우스는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세 사람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3. 그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4.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5.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는 트집잡을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6.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7.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왕에게 몰려 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8.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9.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

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 못하는 법입니다.” 10. 다리우스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11. 왕이 그 금령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 12.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13.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서는 친히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14.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세 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15.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16.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 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샤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17.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굶이지 않고 섬겨 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18.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 내지 못하게 하였다.

19. 왕은 궁으로 돌아 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20.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21. 그는 우리에 다가 서서 목멘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 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 내 주었느냐?” 22.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23. 소인이 섬겨 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24.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25.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 다가 사자 우리에 처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26. 다리우스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친한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27.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27.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28.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 내셨다.”
29.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샤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만 보호하실 수 있다.
- * 일부 예언적인 말씀은 유대인의 신앙과 반대되는 거룩한 땅 밖에서 주어지기도 했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준다.
- * 진실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본의 아닌 실수를 행할 수 있지만, 순진함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해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왕국을 처음 정복할 당시 왕국 내의 왕족들 중에서 일부 뛰어난 젊은이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갈대어와 바빌론의 학식을 가르쳐 그의 신하로 삼고자 했다. 다니엘은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이 젊은이들을 포로나 죄수와 같이 다루지 않고 왕가의 일원으로서 대우해 주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인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바빌론에 끌려올 당시부터 과거 그들이 양육되었던 조국의 종교법이 금하는 어떤 것도 따르기를 거부했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 『활활 타는 화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불가마에 던져졌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주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 다니엘은 이 능력으로 인해 나라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바빌론이 메대왕 다리우스에 의해 정복된 후에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궁중의 신하들에 의해 꾸며진 음모에 빠지는 모습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성실히 순종해 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 하려드는 모든 거짓이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기어이 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는 ‘사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주님의 도움으로 사자들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것이다.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분명한 교훈도 있다. 즉,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신이 해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7장의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이다.

본문의 또 다른 두 가지 교훈은 다리우스 왕의 측면에 있다.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잠시 생각해보지 않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누군가가 위협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의로움으로 굳건히 설 용기를 가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인정하도록 인도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교」 제 754장: “교회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과멸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거짓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데서 비롯된다. 거짓이 진리로서 나타날 때 본질적으로 선인 선, 즉 영적인 선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이라고 믿어진 선은 고작 자연적인 선, 즉 도덕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선일뿐이다. 진리가 종말을 고하고, 이로 인해 진리의 선이 과멸되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 영적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자연적인 사랑에 있다. 두 가지 자연적인 사랑이란 자아사랑과 세상 사랑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반대되어 자아 사랑이 우세해지고, 이웃사랑에 정반대되어 세상 사랑이 우세해질 때 극에 달한다. 자아사랑이란 어느 누구도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을 사랑함이다. 이러한 사랑들이 육체를 씹먹어 가는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퍼져갈 때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은 파괴되고 만다. 이런 사랑이 교회에 침투해오는 것이 바빌론으로부터 명백히 파악되는데, 다음의 구절들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창세기 11:1-9, 이사야 13장과 14장 그리고 47장, 예레미야 1장, 다니엘 2:31-47과 3:17과 6:8-28 그리고 7:1-14, 계시록 17장과 18장 등).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누구인가?
- 2) 왜 그는 바빌론에 있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해지도록 했는가?
- 4) 어떤 국가가 바빌론을 정복했는가?
- 5) 이 나라 왕은 누구인가?
- 6) 그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내렸는가?
- 7) 누가 다니엘을 음모했는가?
- 8) 다리우스는 어떤 법령에 서명하도록 설득되었는가?
- 9) 다니엘은 무엇을 계속했는가?
- 10) 왕은 다니엘을 잃기를 원했는가?
- 11) 왜 그는 서명했던 법령을 철회하지 못했는가?
- 12) 다니엘은 얼마 동안 사자굴에 갇혀 있었는가?
- 13) 누가 그를 구원했는가?
- 14)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5) 다리우스는 어떤 새 법을 공포했는가?
- 16) 예언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사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언자가 된 젊은 왕자 2) 바빌론 식의 교육을 시키려고
- 3) 하느님에 신실했던 것 4) 페르시아 5) 다리우스 6) 정승
- 7) 다른 정치 지도자 8)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9) 평상시와 같이 기도함
- 10) 아니다 11) 바꿀 수 없기 때문 12) 밤새도록
- 13) 천사 14) 사자굴에 던져졌다
- 15) 모든 이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예배하라 16) 하느님의 말씀
- 17) 좋은 의미로서는 진리의 권능을 뜻하고, 나쁜 의미로서는 거짓의 권능을 뜻함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

머리말

에즈라서 1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을 읽은 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둔다.

성 서 본 문: 즈가리아 제 4장

4장: 1.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 와서 나를 흔들며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 하는 나에게, 2. 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 등잔대 꼭대기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십지 주둥이가 하나씩 뚫린 등잔 일곱 개가 붙어 있었다. 3. 그리고,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4.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나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5. 나와 말하던 그 천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하고 되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6.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6. 이것은 야훼께서 즈루빠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산아, 네 아무리 크다 하여도
 즈루빠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들을 떼어 올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하며 환성을 올리리라.”

8.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9. “즈루빠벨이 제 손으로 이 집에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가 만군의 야훼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10.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즈루빠벨이 골라 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11. 나는 그 천사에게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12. 또 금대롱으로 기름을 대어 주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 천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14.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

교리 요점

- * 성전의 재건은 주님의 강림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 *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은 포로들의 귀환 후 예언되었다.
- *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의도하심을 반드시 수행하실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한다.
- * 신앙에는 사랑이 필수이다.

해설

만약 교인들에게 “소 예언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글쎄요.”라고 얼버무릴지 모른다. 일부 사람들은 그 책이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난다는 것 그리고 요나가 그 책에 속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 예언서들의 메시지와 그들을 위해

그 예언서들이 전하고 있는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

소 예언서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 중의 다른 책들과 영감 된 무계가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우리는 자주 들었던 인용 구절들이 소 예언서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즉각적이고 명백한 교훈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생활에서부터 유다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된 후인 ‘회복의 시대’에 예언되어 쓰인 책이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페르샤 왕 고레스를 들어 쓰셨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 성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셨던 것이며, 태초부터의 성경 이야기가 있어왔던 거룩한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하도록 해 주셨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귀환 후 곧바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주님의 집을 짓는 그들의 열성은 이내 식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몰두했다. 이 이야기는 덧없이 짧은 삶을 살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아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위의 사항을 일깨워주며, 주님의 집을 짓는 데에 그들이 계속 힘쓰도록 종용하고자 보내진 자들이었다. 본문에서 언급된 즈룹빠벨은 유다 왕 여호야킨의 손자로서 귀환백성의 지도자였다. 그에 대한 즈가리아의 메시지는 “만일 그가 성실히 재건을 계속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어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본문은 위의 사항 외에도 우리를 위해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성경 어디에서나 빛은 진리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고(요한복음 8:12)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5:14). 등잔은 세상에 있는 교회와 말씀을 공부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복음 5:14-16).”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등잔에서 타고 있는 기름이 사랑을 표현함은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열 처녀의 비유를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즉,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올리브나무와 올리브기름은 사랑에 대한 상징물이다. 그렇다면 쏫대 양쪽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등에 기름을 대어주는 올리브나무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의 심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큰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질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서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라고 즉시 답해 주신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638-7항: “이는 즈루빠벨에 의한 성전 또는 집의 기초를 다루며, ‘집’ 또는 ‘성전’이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등경’이 예언자들에 의해 보여 지는 것이다. 그리고 ‘등잔대 옆의 두 올리브나무’는 계시록에서 요한에 의해 보여 진 바와 같다. ‘두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열매’는 천적인 선을 의미하는데, 이 선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혹은 형제나 동료들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을 의미한다. 전자의 선이 ‘등잔대의 오른쪽에 보이는 올리브나무’로 의미되고, 후자의 선은 ‘등잔대의 왼쪽에서 보이는 올리브나무’로 의미된다. 이 선에서의 진리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에 의해 의미된다. ‘온 세상의 주를 모신다’는 그분으로부터 실재와 실체가 있음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몇 년간 포로로 있었는가?
- 2) 어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용했는가?
- 3) 그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4) 귀환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 5) 포로가 된 모든 유대인은 귀환을 원했는가?
- 6) 바빌론에 남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귀환하는 동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7) 왜 성전의 건설은 지연되었는가?
- 8) 그들은 성전 건축 대신 무엇을 행했는가?

- 9)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는가?
- 10) 본문의 환상은 즈가리아에게 어떻게 왔는가?
- 11) 그는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2) 즈루빠벨에게 전달하라고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천사는 등잔이 무엇이라고 즈가리아에게 말했다는가?
- 14)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인가?
- 15) 성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등잔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주님의 눈”은 무엇인가?
- 18)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70년 2) 페르샤왕 고레스 3) 성전 재건 4) 즈루빠벨 5) 그렇지 않았다
- 6) 자원 예물과 각종 필수품의 공급 7) 자신들의 안락에 더욱 몰두해 있었다
- 8)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9) 예언자를 통해서 10) 천사로부터 11) 등잔과 두 올리브 나무
- 12)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 13) 주님의 눈 14)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 15) 천국적인 인격 또는 우리속의 교회 16) 말씀, 신성한 진리를 담은 그릇
- 17) 신성한 섭리 18)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 선

요나와 아주까리

머리말

요나서의 1장과 2장을 읽지 않고서는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1장과 2장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요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문사항들은 흔히 세간의 질문거리가 되며 심지어는 그를 비롯한 이들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해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나서 3, 4장

3장: 1. 야훼의 말씀이 또 다시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 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3.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 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4.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 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다. 5.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하게 되었다. 6.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어의를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 7. 그리고 대신들의 뜻을 모아 니느웨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

8.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8.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굴던 나쁜 행위를 모두 버려라. 9. 하느님께서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아느냐?”10.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 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4장: 1.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투명스럽게 2. 야훼에게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심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3.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4.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5. 요나는 시내를 빠져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불 심산이었다. 6. 그 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 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7.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쏴아 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더우기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9.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나?”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와하느냐? 11.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 이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교리 요점

- * 인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다.
- * 자기주장을 확증하려는 데에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 * 진정한 선행을 갖는다면 악한 사람이 회개하며 벌을 면하게 될 때 기뻐할 것이다.

해설

어떤 이들은 요나서를 가지고 “요나와 고래”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본문의 내용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장난조의 이야기로 전락시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움을 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깨뜨리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성경에서 요나를 삼킨 것이 고래라고 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나서는 “주님이 요나를 삼키도록 큰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전한다. 과거 전통적인 번역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고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히브리어로 “큰 고기”를 뜻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잘못 번역된 것이다. 이 기적은 주님의 베푸신 기적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경이롭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다. 주님 역시 지상에 계셨을 때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체험으로 장차 있게 될 예언임을 보여주셨다. 이에 대한 사항은 누가복음 11장 29-3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믿도록 하여 아무렇게나 다뤄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놀랍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초점되어 있다. 그 이유는 본문이 자신이 타인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두뇌가 명석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거짓된 믿음과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도 이러한 악을 증거 하는 것이다. 요나는 자신이 주님의 예언자이고, 성경을 가진 선택된 백성들의 중의 한 사람이라고 우쭐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수준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을 멸시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큰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고 분부하셨을 때 순종치 않으려고 애썼다. 그가 큰 고기로 인해 순종해야함을 경험한 후에도 그의 심정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니느웨가 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곳으로 갔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 의해 그곳의 멸망이 유보되자 분노하고 말았다. 우리는 누군가를 경멸하게 되면 그를 가르쳐 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결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주님은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러앉아 자아 만족으로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우리는 마치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초막을 치고 앉아 있는 모습과 같아지는 것이다. 요나가 서늘하도록 자라 올라 그늘을 제공한 아주까리(박녕쿨)처럼 스스로를 꽤 중요한 인물로 혹은 자신이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 자기만족에 빠져든다면, 결국 그는 스스로의 의구심과 불협을 이루는 생각들로 인해 파멸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할 때만이 한없이 행복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01-36항: “그 국가 속에 있는 악은 나무로 하여금 시들도록 벌레가 쏴아먹은 아주까리(박녕쿨)로 의미되고 있다.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인 해’란 그 국가에 만연된 자아 사랑을 의미하고, ‘뜨거운 열(동)풍’이란 그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주까리를 쏴아먹은 벌레’란 이 악과 거짓의 파괴를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요나서는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 중 어디에 속하는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3)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는가?
- 4)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5) 니느웨는 어느 나라에 위치했는가?
- 6)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7) 왜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는가?
- 8) 요나는 기뻐했는가?
- 9)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0) 그가 더위를 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자랐는가?
- 11) 무엇이 아주까리를 파괴시켰는가?
- 12) 그래서 요나는 분노했는가?

- 13)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아주까리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벌레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의 태도와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소 예언서 2) 엘리사 후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3) 너무 거만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4) 태풍이 바다에 몰아쳤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5) 아시리아 6)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7)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8) 아니다 9)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10) 아주까리 11) 벌레 12) 예 13)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 우월감 15)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가 옳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짓된 생각 16)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것보다 낫다고 느끼는 경우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머리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태도를 상기해 보면, 주님의 오심을 필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복음서에 성탄절에 관한 외부 사건이 없음을 주시하고, 본문 첫 다섯 구절들을 암기해 두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 복음 1장

1장: 1.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2.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8.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17.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성직자 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20.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시오? 엘리야요?”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22.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23.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오”하고 대답하였다.

24. 그들은 바리새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하고 물었다. 26.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27.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30.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31.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해 주셨다. 34.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35.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서 있다가 36.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 38.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39.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42.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43.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야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44.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45.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 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46.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47.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48.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하시고 5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 *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는 구약성서의 성취였다.
- *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 지침의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원할 때에만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다.
- *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

해설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밀접한 연관성과 구약성서를 알지 못하면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태도는 이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경멸했고, 온 인류에게 가르치도록 위탁되어 온 영감 된 성서들을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간직하고자 했다. 요나의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성직자 들이나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자신들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주어서 인정하도록 고안한 각종 규정이나 법들을 덧붙여

두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단순한 선으로 사는 유대인들조차 성경이 실지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영적인 어둠으로 세상이 덮여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주님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속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살아내심으로써 인간 영혼에 빛을 가져다 주셔야 했던 이유이다. 이리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이들은 그분을 거절했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자 한 이들은 그분을 영접했다.

요한의 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사항은 주님의 생애에 관한 외면의 이야기보다 그것이 가진 더 깊은 뜻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제 1장에서는 성탄절 이야기 대신에 하느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여기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받아쓰게 한 영감 된 성서 속에 거하시는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례자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입으신 인성 속에서 살고 계신 동안 그분 스스로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했다. 또한 그분은 하느님을 그분의 아버지로서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은 인성속의 악을 극복하면서 인성을 조금씩 벗어 가시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라고 간청했을 때에 주님은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본문에서의 요한이 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100항: “주님이 어떻게 말씀이신지를 이해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말씀속의 이야기에 주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말씀을 수단으로 인간을 가르치고 계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 사항을 모른다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바 그 사랑은 각자 속의 선과 진리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간은 이 사랑으로부터 사람으로 존재하는 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인간들 속에는 더 이상의 것은 없다. 천사나 영인들이 사람이라는 것도 인간이 자신들 속의 선과 진리라는 사실로부터

근원된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선과 진리의 본질적인 형상이 곧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신성한 사랑과 진리 자체이셔서 유일한 사람이시며 이로부터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나는 누구인가?
- 2)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돌아났는가?
- 3)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4) 그는 니느웨에 어떤 예언을 했는가?
- 5) 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 6) 요나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7) 그의 심정과 지성을 그려주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가?
- 8) 주님은 그 사건으로 요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 9)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무엇을 해 놓았는가?
- 10)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 11)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 12) 우리가 예배를 가질 때 성경을 제단위에 놓고 말씀을 열고 닫는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 14) 본문에서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
- 15) 어떤 징조가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16) 본문에서 어떤 사도들이 등장되는가?
- 17) 나타나엘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 18)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 19) “하느님의 아들”은 무슨 뜻인가?
- 20) 왜 만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예언자
- 2) 너무 거만하여 니느웨를 경고하지 않고 싶어서
- 3) 큰 물고기가 삼켰다
- 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 5)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 6) 성이 났다
- 7) 박 넝쿨의 이야기
- 8)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 9) 자기들 사상으로 말씀을 덮어놓았다
- 10) 성서 참조
- 11) 신성한 진리가 글로 표현된 형체
- 12) 주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물
- 13)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되심
- 14) 세례자 요한
- 15) 비둘기
- 16)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
- 17) 바르톨로메오
- 18) 그분은 인간의 지성을 계발해 주신다
- 19)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신성한 인성
- 20) 어떤 이들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임

27

가나에서의 기적

머리말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데, 요한 복음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타 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재정리 해두어야 한다. 즉, 주님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나사렛으로의 귀환, 십 이세가 되던 해 성전으로 오신 주님, 세례 그리고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적에 관한 것과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셨던 까닭을 살펴본 후 본문을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의 복음 2장 1-11절

2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3.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4.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5.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8.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9.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냈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10.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11.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차차 신성화하신 후에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벗으셨다.
- * 복음서에서 갈릴래아란 삶의 외부측면을 표현한다.
- *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면 신성한 진리에 관한 우리의 자연적인 지식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여 그것들이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 * 결혼이란 선과 진리가 하나 됨을 표현한다.

해설

우선 공생애 이전의 주님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헤로데의 유아 학살사건을 피해 이집트로 피하신 몇 년 후에 나사렛으로 되돌아오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장하셨다. 주님은 삼 십 세 되시던

해에 요르단 강으로 가서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십 일간의 시험을 거치셨다. 이후 주님은 그분의 지상 생활에 있어진 공생애 동안 갈릴래아 해변의 가파르나움에 주거를 정하셨다.

주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마태와 누가의 복음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요한의 복음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추측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들이 상상해낸 이야기들은 진리가 없는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복음서들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주님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 기록 이상의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골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그분의 큰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분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날마다 겪으셨다는 것,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인성을 입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시험을 하나씩 극복해내심으로써 유한한 인성을 차차 벗어나시면서 신성한 인성으로 대체해 가셨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유로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가지신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청했을 때 그분께서 “여인이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를 글자대로 번역하자면, “저나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마리아를 꾸짖으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인 것이다. 즉, 주님의 권능은 그분이 마리아에게 입으신 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있는 신성한 인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의 첫 기적은 그분의 능력이 초자연적임을 예증해 주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세상은 그분이 만드셨다”와 같은 말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실 진리를 원하며 그분을 믿었지만, 그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의 논쟁에 직면하지는 못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확증하려고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기적들은 우리를 위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그들 각각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 안에 들어와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돌 향아리 여섯 개”를 가지고 있다. “돌 향아리 여섯 개”란 공부나 명상으로 인해 의미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말씀의 일반적 개념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더욱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퍼내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진리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일상생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사용하며 그 진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삶에 사용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 퍼 올리는 과정에서의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우리가 진리를 사용할 때만이 진리는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변화되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649항: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갖게 된 인성의 분리가 뒤따르고 있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것이 완전히 제거됨이다. 주님은 그분이 신성화 하실 때까지 점진적이면서 계속적으로 유한한 인성을 분리시키고 벗으셨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어머니로부터 파생된 것을 벗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임을 의미한다. 이는 잉태에서부터 출생까지를 포함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와 하나가 되고 여호와 자신이었음을 알게 해주신다. 그분이 스스로 어머니로부터 온 인성의 모든 것을 분리시켜 벗으셔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님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명백해진다. 즉,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여자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질문 정리

- 1)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2) 왜 우리는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이 되셨다”라고 부르는가?
-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5)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 6)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누가 태어났는가?
- 7) 어떤 징조가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8) 어떤 제자가 주님을 처음 뵈었는가?
- 9) 이 밖의 어떤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는가?
- 10)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11) 베들레헬은 거룩한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2)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13) 나자렛은 그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4)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어디서 사셨는가?
- 16) 기적이란 무엇인가?
- 17)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 18) 왜 주님은 가나로 가셨는가?
- 19) 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 20) 누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참조 2)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 3)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이시기 때문
- 4) 그분의 진리가 살아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준다는 뜻 5)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6) 세례자 요한 7) 비둘기 8) 안드레아 9)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바르톨로메오)
- 10) 베들레헬 11) 유다 12) 나자렛 13) 갈릴래아 14) 사마리아 15) 가버나움
- 16) 주님께 의해 행해진 경이로운 것들 17) 가나 18) 혼인잔치 19) 포도주 20) 마리아

주님과 니고데모

머리말

제 1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근간으로 본문을 살펴본다. 니고데모는 위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에 속했으나 주님을 믿는데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했다. 본문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3장 1-21절

3장: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2.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5.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6.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7.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8.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9.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1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2.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 간 일이 없다. 1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17.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을 아시며, 우리의 약함을 위해 그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 *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 * 우리는 자신 안의 참된 감정을 덮어두려는 심정속의 악을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설

본문의 첫 구절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인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된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란 유대 종교회의의 70인을 뜻하며, 이 회의의 의장은 대성직자 였다. 주님은 이 회의에서 심문을 받고 저주를 당하시게 된다. 바리사이파인들이란 자신들이 종교규율을 가장 엄격히 준행한다고 자랑하던 계층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들과 칭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적대시했는데, 이는 그분의 가르침이 백성들을 내려 누르는 바리사이파인들의 이기적인 규율들을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관해서 그의 동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그가 주님께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주님께 공개적으로 나올 만큼의 용기는 그에게 없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가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처럼 주님은 어느 군중들이 그분께 나왔듯이 니고데모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왔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태어날 때 가진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들을 반드시 바꾸어야 함을 그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물세례란 재구성 곧 우리 삶의 행동 지침을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정화함을 의미한다. 성령과 불세례란 우리속의 거짓 생각과 악한 바램들을 몰아내고 그 대신 주님의 진리와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이해성과 마음속에 들어올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중 하나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사람들을 단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다. “주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말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특정한 종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자들은 반드시 본문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단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죄를 받는 것은 자아와 세상을 선택한 것에서 비롯되는 인과응보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심이 지옥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경외함)이란 올바르게 선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두려움에는 자신속의 어떤 것을 극도로 사랑하여 일어나게 되는 두려움도 있다.

또 다른 교훈은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했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 교훈은 19-2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자신 속에 든 진정한 생각과 느낌을 감추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신호와 같다. 우리는 자신속의 느낌과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진리를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을 때, 다음의 구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새예루살렘 교리」 제 179항: “모든 사람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을 가지고 있다. 내적 인간은 영적 사람으로 그리고 외적 인간은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각각이 거듭 나아져서 온전히 한 인간이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인(외적) 인간이 그 사람 전체를 통치하게 되고, 그의 내적(영적) 인간은 다만 섬길 뿐이다. 반면에 거듭 나아가는 사람은 내적(영적) 인간이 통치하게 되고, 외적 인간은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는 사항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삶의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적 인간이 그를 통치하고 외적 인간이 섬겨야 하는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 질서는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거듭남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질문 정리

- 1)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인가?
- 2) 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 4) 왜 그들은 주님을 반대했는가?
- 5)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사이파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7) 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 갔는가?

- 8) 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9) 주님은 그가 어떤 질문을 원한다고 보셨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1) 주님은 “다시 태어남”에서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의 구리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14) 이미 죄인으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 15)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을 두둔하려 들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6) “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성령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8) 세례자 요한의 일과 주님의 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 아주 엄격한 종교계층, 서기관 - 성경을 베끼는 사람
- 2) 자기들 사상을 첨가시켰다 3) 위선자 4)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
- 5) 니고데모 6) 의회 의원 7)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8) 기적들
- 9) 하늘로 가는 길 10) 다시 태어나야 한다 11)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 12)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3)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14) 믿지 않는 것
- 15) 십중팔구 자신의 고집대로 원할 것이기 때문 16) 바깥쪽 삶을 깨끗이 함
- 17) 안쪽 삶을 순수하게 함
- 18) 세례자 요한 - 바깥 삶을 깨끗이 함
주님 - 자아사랑을 주님과 이웃 사랑으로 대체시키고 생각을 순수하게 함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

머리말

본문은 몇몇 성경의 이야기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정복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4장 1-42절

4장: 1.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3.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4. 그 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1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시자 11.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2.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15.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하고 청하였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17.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4.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26.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 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돌아 가 사람들에게 29.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

니다” 하고 알렸다. 30.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 들었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34.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본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너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36.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삯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37.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38.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40.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 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41.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 *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수가 솟는 우물이다.
- * 선행(charity)은 믿음 또는 진리와 함께 하여야만 그 실재가 가능하다.
- * 선행이 바탕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 * 선행과 믿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서 분리되어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설

주님은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뒤 제자들과 더불어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 가셨다.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래야로 되돌아가는 여행길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주님 시대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갈릴래야, 이 두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사마리아 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어간 후 그 지역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그곳에 살도록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거주한지 칠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하느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유대인의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으나 호의적이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놓고 있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성의 있게 주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었다. 그녀와 그 마을의 주민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때만이 야곱의 우물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에서 길어 올린 진리의 물을 영원한 삶에 필요한 생명수로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심을 보고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찾겠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시대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분이 우리의 시대에 사셨더라면 아마도 다르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금까지 살아 온 모든 인간들 중에서 최고의 인간으로서만 간주하고, 그분의 것보다 자신의 견해가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상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인데, 이런 사상은 깊은 우물로부터 힘들여 소량의 물만을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때나마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성 속에 사셨던 하느님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서 항상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에 응용했을 때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1074-2항: “신성한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세 천국을 거쳐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려와 기록됨과 더불어 각 천국에서도 말씀이 있게 되어 각 천국을 하나로 묶어주고, 천국은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 이유는 말씀이 어느 곳에서나 똑같으나 천국의 수준에 따라 영화로움과 지혜의 완전성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신성은 천국을 거쳐 그분의 신성과 말씀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말씀을 읽는 세상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 또는 천국 자체로부터 받아들여듯이 말씀으로부터 혼용되어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천사들이 공급받는 양식과 같은 양식으로 먹여져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바, 다음의 말씀을 참조하기 바란다.

*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요한복음 6:63).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4:14).”

질문 정리

- 1)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의 세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2) 중간 지역은 어디인가?
- 3) 사마리아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시고 계신가?
- 5) 그분은 어느 곳에서 쉬시기 위해 멈추셨는가?
- 6)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구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7)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누가 왔는가?
- 8)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왜 놀랐는가?
- 9) 주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0) 주님이 예언자임을 알도록 그녀에게 보여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가?
- 11)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3)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었는가?
- 14)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생명의 물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2) 사마리아 3) 아시리아 왕에 의해 이주된 외국인들
- 4) 유다로부터 갈릴래아로 5) 야곱의 우물 6) 야곱이 사서 요셉에게 준 땅
- 7) 사마리아 여인 8)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
- 9) 10절 참조 10) 다섯 명의 남편 11) 나는 그리스도이다
- 12)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13) 그분의 말씀들
- 14) 말씀 15) 생명 있게 하는 신성한 진리

30

베짜타 못

머리말

본문 이전의 사건은 주님의 두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인데, 이 구절 역시 읽어두기 바란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과월절을 기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장 45절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첫 방문 시에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말한다(2:13-16). 본문 이전의 이러한 사항들은 주님께서 유대와 갈릴래이를 자주 오고 가셨음을 보여준다.

성서본문: 요한복음 5장 1-16절

5장: 1. 얼마 뒤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2.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5. 그들 중에는 삼 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6.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으셨다. 7.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판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거라” 하시자 9.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11.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12. 그들은 “나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13.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구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14.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15.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이해성 안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 * 어린 시절에 획득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베짜타 못”이다.
- *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면, 말씀의 지식은 이때 우리의 이해성을

휘젓게 된다.

- * 우리는 자신의 과오 중 하나가 고쳐진 후 또 다른 과오와 싸우기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보다 더 큰 악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이뤄주기 때문이다.

해설

주님은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1888년 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양의 문으로 알려진 곳 근처에 위치한 고대 기독교회를 수리하는 토굴 작업 중 연못을 발견했다. 그들은 발굴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섯 개의 행각과 그 벽에 본문의 기적을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려진 것이 빛이 바래 있었던 것도 발견했다. 그래서 이 못이 요한복음의 베짜타 못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베짜타 못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는데, 그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물에 관련된 세 번째 교훈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자연물 중의 하나이다. 연못에 집합된 물은 기억 속에 집합된 진리를 표현한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짜타라는 못은 주님께 관련된 사항과 올바른 것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이러한 지식은 순진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에 받은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의 기억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섯 행각이란 우리의 오감을 뜻하는데, 이러한 지식들은 오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감동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이란 누구일까?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병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많은 결점들이 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결점도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결점(잘못된 습관)을 고치고자 하면, 주님의 천사 곧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연못 속의 물을 휘저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의 기억속의 진리가 휘저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재빨리 본 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삶에 응용하면 우리의 결점이 치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속에 더 깊은 악들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해서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말하며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못의 물이 움직여질 때 재빠르게 못으로 뛰어들이 못한 채 삼십 팔 년 동안 허약해진 무기력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늘 우리 곁에 서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서서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주님은 “낮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선한 인격이 되고자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낮고자 결심하게 되면, 주님은 “일어나 요를 걷어내고 걸어 가거라.”하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다. 즉, 우리의 무기력함을 타면서 제자리걸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속의 약함을 극복하고자 결심 할 때 그 약을 극복할 올바른 것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짜타 못가의 병자에게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정복했을 때 자신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려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속의 더 깊고 깊은 곳에 틀어박혀 있는 악들을 보고 싸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의 목적이며 도전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주님이 우리를 그 싸움에 홀로 두시지 않고 언제나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360-8항: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자체와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분은 표현에 불과한 예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 안식일을 폐기시키고, 그 날을 믿음이나 사랑에 속한 교리를 가르쳐주시는 날로 만드셨다. 이것이 요한에 의해 쓰인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병을 고치심’이란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에서 나오는 거짓으로부터 인간을 순수하게 하심을 의미하고, ‘침대 또는 요’란 교리를 의미하며, ‘걷는 것’이란 생활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의 어느 부분인가?
- 2) 사마리아 사람의 선조는 누구인가?
- 3)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래아로 가시던 도중 어디서 멈추어 쉬셨는가?
- 4) 주님이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여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는 왜 놀랐는가?
- 5) 주님은 그녀에게 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6)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에 관한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베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10) 못 주위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11) 어떤 이들이 행각에서 기다렸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 13) 물이 휘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 못에 있었는가?
- 15)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 16)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7)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8) 그가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19)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꾸짖었는가?
- 20) 주님은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종교지도자들은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 22) 우리속의 베짜타 못은 무엇인가?
- 23) “일어나 요를 건너들고 걸어가거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중간지역 2) 외국인 3) 야곱의 우물
- 4)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 5) 4장 10절 참조

- 6) 나는 그리스도이다 7)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8)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 9) 예루살렘 10) 5 11) 병자들 12) 물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림
- 13) 먼저 물에 들어간 병자는 치료됨 14) 38년 15)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 16)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17)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
- 18) 치료되었다 19) 그는 안식일 법을 깨트렸다 20)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 21)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22) 기억 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지식
- 23) 너의 생각을 끌어 올려라, 네 삶을 기초한 교리를 추켜 들어라, 앞으로 전진하라.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머리말

본문은 기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문 전체를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9장

9장: 1.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을 눈에 바르신 다음
-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과견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 왔다. 8.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9.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시오”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하고 묻자 11.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3.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4.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17.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8.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예,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의 아들입니다. 21.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였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23.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놓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 못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26.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요?”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27.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헤드렸는데 그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2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30.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 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3.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34.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눈멀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8.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39.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던 말시오?” 하고 대들었다. 41.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교리 요점

- *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발달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 * 눈이 먼 채 태어난다고 함은 영적으로 볼 때 신성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할 기회를 외부적인 환경면에서 박탈되었음을 뜻한다.
- * 결함이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해설

어떤 교회에서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례에 의해 그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친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질병이나 불행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주님께 의해 인간에게 가해진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교리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전혀 다르다.

본문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흔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님께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말씀해주셨다. 위의 두 구절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육체의 눈이 먼 소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경이 많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고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은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어버리면 곧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그의 영혼이 언제나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새교회의 교리는 이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설명해 준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여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은 이미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품행이 나쁜 아이에게 “네가 조금만 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훨씬 더 행복해 질 수 있음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어.”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그 아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까닭은 그가 그렇게 되고자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교훈이 바로 이와 같다. 그들은 진리를 알기를 거절했는데, 이는 진리가 그들의 이기적인 자만이나 포부와는 반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본문의 소경은 겸손하며 올바른 것을 알고자 했으며 그대로 실천했다. 본문에서 주님이 그를 보았다는 말은 그분이 그의 마음과 생각들을 보았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도 주셨다. 본문의 소경이 자신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인도되었을 때 주님에 대한 그의 이해성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먼저 주님을 “예수라 불리는 사람” 정도로만 알았다. 그 다음 그는 그분이 예언자이심과 그분의 능력은 하느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느님의 아들 곧 육을 입으신 하느님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이해성 안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주님이 일어나셔야만 한다. 외적인 고난은 우리와 주님이 접촉되는 수단일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며 주님이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도울 준비를 완료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로 야기된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으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와 우리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239-19항: “누구든지 말씀 속의 영적 또는 내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란 교회 밖에서 태어나 주님께 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만든 진흙’이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 오는 진리를 수단으로 이뤄지는 재구성성을 의미한다. ‘땅’이란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를, ‘진흙’이란 신성이 형성되는 가장 바깥쪽을,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심’이란 가장 바깥 쪽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는 것을, ‘실로암 못’이란 글자적인 의미로서의 말씀을, ‘실로암 못에서 씻는다’는 것은 거짓과 악들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뼈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2) 그 못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3) 누가 행각에 모여 있었는가?
- 4)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는가?
- 5) 어떤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가?
- 6)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7)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9) 그가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0) 그 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1) 본문의 소경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가?
- 12)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13)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14) 소경의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게 되었는가?
- 15) 이 기적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 16) 눈을 뜨게 된 자는 이 반론으로 인해 자신을 치료해주신 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도록 인도되었는가?
- 17) 소경의 부모가 주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8) 그들이 기적의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적들은 주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가?
- 19) 눈뜬 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20)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21) 그 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22) 눈뜬 자는 자신의 말씀에 어떻게 응했는가?
- 23) 본문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24) 바리사이파인들은 무엇을 물었는가?
- 25)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 26) 소경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7)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루살렘 2) 5 3) 병자들 4) 치료받기 위해 5) 38년
- 6)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7)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 8) 일어나, 요를 걷어내고, 걸어가라 9) 치료되었다 10)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 11) 태어날 때부터 12) 누구의 죄 탓입니까? 13) 누구 탓도 아니다
- 14) 진흙을 바르고 못에서 씻음 15)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16) 예언자
- 17)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18) 그는 죄인이다 19) 32절 참조
- 20) 쫓겨났다 21)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22) 그분을 경배했다

- 23) 심판을 위해 24) 우리가 눈이 멀었던 말이오? 25) 41절 참조 26) 무지
27) 주님을 믿을 것이냐? 또는 믿지 않을 것이냐?

32

선한 목자

머리말

본과의 제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0장

10장: 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 우리에게 들어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2.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양떼를 불러 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10.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2. 목자가 아닌 샅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13.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6.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18.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20.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21.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यो?” 하고 말했다.

22.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23.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3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 온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1. 이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3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33. 유대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35.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36.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39. 그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40.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 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하면서 42.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겸손하며 신뢰하는 상태로 간직해야 한다.
- * 주님의 가르침 위에 자신의 생각 혹은 타인의 사상을 얹어 놓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진리를 훔치는 것이다.

해설

시편 23편은 읽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아기 때의 경험을 우리의 깊은 곳에 아껴두신 상태, 즉 순진과 신뢰의 상태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되기 때문이다. 아껴두신 것은 주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를 두고 “내 새끼” 또는 “내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주님의 어린 양이란 그분께서 우리 속에 아껴두신 것으로부터 자라나도록 허용된 우리에게 있는 미덕인 것이다. 여기서의 미덕이란 우리는 무지하고 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식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추세는 위와 같은 겸손한 상태, 즉 어린 시절의 상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오직 자기 확신이나 자기주장만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겸손과 신뢰의 상태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갈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산적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의를 행하는 까닭은 그로부터 있게 되는 어떤 이득, 즉 사회단체에서의 명성 혹은 존경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실로 선함을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의를 행할 때 개인적인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의로움에 대한 원리는 즉시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르침 앞에 어떤 명사의 사상을 놓거나 자기의 묘안을 갖다 놓으려는 자들은 그분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참된 안전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문을 연 자 혹은 그 음성을 따르려는 심정을 지닌 자들만이 그분의 양떼들이다. 이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울안에 있는 여부와는 상관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저 세계에 들어 갈 때 그분에 관해 다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의 바리사이파인들 같이 이 세계에서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욱 중요해서 혹은 자신의 지식이 최고여서 귀를 막고 있던 자들은 저 세계에서도 귀를 막고 있어서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가르치셨다. 바리사이파인들과 한통속인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우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이 같음을 알아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과 지옥』 제 276-280항: “이 세상에서 순진과 그 본성에 대해 알고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 순진은 어린이들의 얼굴,

언어 혹은 몸짓에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순진이 무엇이며 인간 안에 저장된 천국이 순진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즉, 어린 시절에 있는 순진을 생각해 본 다음 지혜의 순진을 차례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상태는 순진과 관계있음을 고려해 보자. 어린 시절의 순진 또는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순진은 순수한 순진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순진은 내적 형체가 아닌 단지 외적인 형태로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진이 무엇인가를 그것으로부터라도 배우게 된다. 그 이유는 순진이 어린아이들의 얼굴과 몸짓 그리고 언어에서 빛나고 그들의 순진이 어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나에게 전해진 사랑은 아이들이 특별히 주님의 창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들은 순진 자체인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유입을 받는다는 것, 그 유입이 그들의 내면을 통과하여 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통과 되는 동안 그들의 내면이 순진만으로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순진이 그들의 얼굴이나 동작에서 보여 그 유입이 명확히 보이게 되는 것이다. 지혜의 순진이란 순수한 순진인데, 이는 그것이 내적이며 마음 그 자체 곧 의지 자체에 속하면서 의지로부터 이해성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천국에서 순진의 거처는 지혜라고 말해진다. 따라서 천사들은 지혜를 가진 만큼 순진도 가진다고 한다. 이는 순진의 상태 속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로부터는 선한 것이 결코 생성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에서 받은 것이며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또한 그들은 그분에 의해 인도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선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진정한 모든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들이 선한 것을 사랑함 곧 선을 뜻하고 행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 정도에 관계없이 만족 하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이 존재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도 없다. 순진은 자아가 아닌 주님께 의해 인도되는 때에 존재한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순진 속에 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에 의해 인도되는 것임과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 2) 주님은 진정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은 양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 4) 그분 앞에 온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은 목자 외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6) 그분이 어떻게 문이 되시는가?
- 7) 샅꾼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 8) 그분이 가진 다른 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유대인은 주님에게 무엇을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 10) 주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 12) 주님과 아버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무엇으로 기소했는가?
- 14) 주님이 목자라고 불리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무엇인가?
- 15) 어린양과 양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순진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선한 목자 2)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 3)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4) 도둑이며 강도 5) 양 우리의 문
- 6) 우리가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 7) 양을 돌보지 않는다
- 8) 양 우리에게 있지 않다 9)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10) 그분의 일
- 11) 그분의 양이 아니므로 1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13) 하느님 모독 죄 14) 시편 23편
- 15) 어린양 - 순진의 특질이 자라남, 양 - 생활 속에 있는 순수하며 선한 특질
- 16) 모든 선함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임
(글자적으로 볼 경우, 헤치지 않음)

다시 살아난 라자로

머리말

본문은 미래의 삶에 대한 교리를 배우기에 적절하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를 일으키신 까닭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의 의식을 옮겨 갈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1장 1-46절

11장: 1.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2. 앓고 있는 라자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3.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4.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6. 그러나 라자로는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7.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9. 예수께서는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11.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들어 있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1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15.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16.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18. 베다니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17.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 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21.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4.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5.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26.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27.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 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었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꼭허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 가 꿩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은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34.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 했던가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38.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39.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0.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41.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43.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44.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6.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교리 요점

- * 죽음이란 부활로 인도되는 일종의 “잠”이다.
- * 우리가 걱정해야 할 “죽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선함이 죽는 것이다.
- *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속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바람들을 방치하게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 회망까지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해설

본문은 우리가 말씀 속의 것들을 기꺼이 믿을 때만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도울 수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본문의 가르침 중 한 가지는 믿음이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주위에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을 듣게 된다. 사실 이러한 말을 뱉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기꺼이 믿고 있었다. 반면에 대성직자나 바리사이파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라는 중대한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든 사람은 사후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어떤 심판을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는 것임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라자로는 잠들어 있다”라고 하신 후 “라자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서술은 모두 진실이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는 잠자리 가는 것과 같고 더욱 많은 아름다움과 행복한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가 앓고 있음을 전해 듣고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라자로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서 다시 깨우실 것임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학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바램의 목적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영적 진보를 이루고 많은 선함을 쌓기 위해서라면 더욱 참된 것이다. 누군가가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지상에서의 그의 삶의 전부는 영원한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각각에게 영원한 삶으로 이전되는 최적의 시기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죽을 때 그를 잃어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죽음에 임하는 그 사람에게에는 항상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란 우리 마음 안의 선함이 죽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우리 속의 모든 가능성을 죽이는 우리 속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를 방치하는 위험에 처하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343항: “모든 거듭남 곧 새 삶으로 있어지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믿는 자는 거의 없다. 그 까닭은 인간이 선행의 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의 선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모습과도 같다. 선행의 선이야말로 믿음의 씨앗을 위한 옥토에 해당된다. 진리와 선은 일치하나 진리와 악은 결코 일치하지 못한다. 그들의 본성은 반대적이어서 서로를 등지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인간이 선 안에 있는 만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선행 안에 있는 만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고 믿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더욱이 악한 자들 또는 악하게 사는 이들은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저 세상 사람들로 인해 나에게 분명해졌다. 또는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 입술로 위의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로부터도 확실해졌다. 이들은 주님 없는 구원은 없다는 믿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악한 생활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끝없는 난해함의 기운이 즉시 그들을 감쌌던 것이다. (그 이유는 저 세상 삶에서는 영들이 단지 생각만으로도 지각되고 그 자체로부터 그 기운이 방산되어 그들이 생각한 믿음의 종류가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라자로는 누구인가?
- 2) 누가 그의 자매들인가?
- 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4)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언제쯤 베풀어졌는가?
- 5) 라자로가 심히 아프게 되자 주님은 즉시 베다니아로 가셨는가?
- 6)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라자로가 죽은 후 며칠이나 지났었는가?
- 7) 마르타가 주님을 뵈자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마르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나자로를 살리셨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12) 대성직자 와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 모의했는가?
- 13) 왜 주님은 베다니아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처음에 나자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고 후에는 그가 죽었다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의 친구 2) 마르타와 마리아 3) 베다니아 4) 그분 생애의 말기
- 5) 아니다 6) 4일 7)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8) “다시 일어난다”
- 9) “마지막 날에...”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11) 돌을 치우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자로가 걸어 나왔다
- 12) 죽이려고 음모했다
- 13) 죽음을 넘어서있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 주시려고
- 14) 죽음이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4

종려주일(4)

머리말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타 복음서에 있는 종려주일의 부분을 읽고 보충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2장 12-50절

12장: 12. 명절을 지내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16.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18.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20.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 지방 베싸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23.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27.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29.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32.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34. 그 때에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35.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39.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2.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43. 회당에서 쫓겨 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43.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 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50.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 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만을 먼저 챙기려 드는 시험을 정복해야 한다.
- * 우리는 육체를 단지 도구로서 간주해야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적인 모습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악은 실제로는 선을 이길 힘이 없다.

해설

우리가 교회에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의례적으로 읽는 성경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첫 종려주일에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수많은 군중들이 일요일에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후 다가오는 금요일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둘째는 주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인 요한복음서에서 주고 계신다.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까닭은 그분이 베푼 기적들, 특히 죽은 나자로를 일으키신 기적 때문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인간의 불운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그들이 오로지 세상적인 번영이나 건강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대해 온 메시아란 로마의 권세를 깨트리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한 번 위대한 나라로 부상시켜줄 지상의 왕으로 오시는 강력한 군주였다. 우리는 주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그분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 가운데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서게 될까를 다투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다. 본문 42절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까지도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지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을 환영한지 며칠 이 채 지나지도 전에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유이다. 또한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도덕적 혹은 영적인 겁쟁이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진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대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25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신다. 주님께서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말이다. 주님은 우리들과 같이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입으셨고, 그 인성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시험을 느끼셨다. 우리는 이를 본문 27절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걸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언제나 시험을 정복하셨는데, 우리에게 정복의 본보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시험을 정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그분은 죽음까지도 통과하셔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의 계속되는 삶에 있게 되는 필수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육체를 벗어 던져서 그 속의 신성한 인간이 보이도록 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그분의 적들이 최악의 것들을 행하도록 내버려두셔야만 하셨는데, 이는 악이 선함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실재적인 권능이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시편 118편은 악에게 어떤 권능이 없음을 “야훼께서 내 편이시라. 나에게서 두려움이 없나니 누가

나에게 손을 대리오?”라고 노래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을 자신의 이상향으로 간직하며 그분의 본보기를 닮아 가는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삶의 연속은 3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되리라”하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르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899-14항: “인간이 사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역시 죽으신 뒤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목적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로부터 가진 모든 인성을 벗으시고 신성한 인간을 입으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입으신 인성 모두를 시험에 의해 거절하시며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벗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 안에 계신 신성 자체로부터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그분의 인성을 신성화하셨다. 즉,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분의 죽음이나 그분을 묻으신 것들이 죽음이나 매장을 의미하지 않고 그분의 인성을 깨끗케 하심과 신성화 되셨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항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밀알의 비유로 가르쳐지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는 몇 년인가?
- 2)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는가?
- 3) 왜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그곳으로 가셨는가?
- 4) 주님은 그날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5) 왜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는가?
- 6) 사람들은 어떤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는가?
- 7)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8) 호산나란 무슨 뜻인가?
- 9) 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 10) 누가 그분의 입성을 보고 화를 냈는가?
- 11) 어떤 이방인들이 그분을 보고자 했는가?
- 12) 어느 제자가 그들을 주님께 안내했는가?
- 13) 주님은 죽음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는가?
- 14)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 16)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7)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 18)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3년 2) 축제 때문에 3) 과월절 4) 나귀 5) 주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 6) 종려나무 가지 7) 호산나 8) 지금 구하소서 9) 왕의 표시, 예언의 성취
- 10)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11) 그리이스인 12) 필립보와 안드레아
- 13) 밀알의 비유 14)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15) 원하지 않았기 때문
- 16) 인간의 칭찬을 사랑했기 때문 17) 신성한 진리
- 18) 세상적인 추론 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성을 종처럼 여겨야 함
- 19)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포도나무의 비유

머리말

모든 생명과 선함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연관 지어 보면서 이를 확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5장

15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3.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4.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13.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15.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19.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나를 수가 없다고 한 내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고 있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 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 내가 일찌기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25.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26.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27.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교리요점

- * 모든 생명과 모든 선함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 * 우리가 주님의 본보기를 따를 때만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생산된다.

가정에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목격하며, 그분이 가르치시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더불어 지냈다. 게다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도 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군중들이 제자기 흩어진 후 제자들을 따로 불러 놓고 군중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을 복음서들에서 수차례 접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 1-23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주님은 종려주일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지상생활 마지막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직접적이며 깊은 교훈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된다.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에 유다가 밖으로 나가 그의 마지막 배신을 마무리 짓는 동안 예루살렘의 이층 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 전반에서 지상의 교회는 포도밭으로 상징화된다. 이사야 5장 1-7절에서는 포도밭의 모습으로 교회가 위탁된 신성한 진리로 행해야 할 것이 예언자에 의해 말해지고 있다. “들포도”란, 바리새인이 나 서기관들이 성경이 명령한 진정한 선행의 삶에 대체 시켜놓은 잘못된 요구사항들을 의미한다.

지금 주님은 지상 삶을 마무리하시는 일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새교회를 기초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위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정한 포도나무이므로 당신의 가르침을 염두 하지 않으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그분은 곧 신성한 진리요 선과 천국적인 삶에 관한 우리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얻으려 하는 포도들은 선행으로부터 열매 맺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는 가시적인 유익함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안에는 하느님에 관한 진정한 생각이 내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이 선하여 선한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속에는 결코 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단호히 명한 임무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님의 분부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삶과 말씀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려 애쓸 때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69-5항: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선행(charity)이다. 선행 안에는 주님이 현존하신다. 주님은 선행을 수단으로 인간과 결합하신다. 따라서 오직 그분만이 모든 선을 역사 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교회 속의 사람 또는 영적인 교회도 묘사하고 계신다(요한복음 15:1-5,12). 영적인 교회의 의미는 이 구절로부터 확실해진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주님의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4)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7)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 8)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가?
- 11) 포도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포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2) 포도나무 3) 가지들
- 4) “내안에 거하라” 5) 밖에 던지워... 6) 그분의 계명에 순종
- 7)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8) 서로 사랑하라 9) 아니다
- 10) 세상에 의해 미움 받고 박해 받는다 11) 신성한 진리 12) 영적인 선택

36

부활절 (4)

머리말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부활 사건은 마리아가 일어나신 주님을 인식한 것 그리고 토마의 의심과 그것의 해결이다. 본과에서는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서본문: 요한복음 20장

20장: 1.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3.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4.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곧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 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7.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흠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그들은 그 때까지도 예수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두 제자는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11.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14.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줄 알고 “여보시오.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시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 서서 히브리말로 “라뽀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 주셨다. 18.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본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19.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7.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29.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0.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사후 영의 몸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
- *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영화를 이루셨다.
- *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해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절 첫 주일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사건이 사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으로 뛰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 곳곳에 기독교회의 기초를 세우도록 해주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이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님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부르자 그녀는 곧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녀가 주님을 과거 세상에서 모셨고 사랑했던 친구이자 스승으로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녀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셔서 그녀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했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필립보가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답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수세기 전 지상에 사셨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닌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여겨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지상에 오신 까닭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모든 시험을 극복해 가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분이 이제 그 인성을 벗으심으로써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우리의 육체적 눈이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투쟁과 실망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의 육체적 눈으로는 일어나신 주님을 알아 뵙지 못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듯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던 것이다. 그분이 일으키신 몸이란 세상에 계시면서 점차 신성한 몸으로 대체해 가신 몸을 뜻한다. 그래서 그분은 잠겨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그분을 인식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그 때와 같이 나타나고 계신다. 이런 사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는 주님에 관해 열심히 배워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뵈 준비를 갖추 때만이 그분을 뵈게 된다. 만약 우리가 더욱 신실해진다면, 그분은 우리의 지성 속에서 일어나셔서 “길ियो, 진리이며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687-18항: “천사들이 무덤에서 보였는데, 한 천사는 주님의 머리 부분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그분의 발치에서 보였다(요한복음 20:12, 마가복음 16:5). 이렇게 보여진 것들은 주님의 신성화하심에 대한 표본물이며, 그분에 의해 천국을 소개받는 것에 대한 표본물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돌’이 무덤을 봉인했고 그 돌이 천사에 의해 굴러졌는데, 이는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이 유대인들에 의해 단혀져 있었음과 주님이 그 단힌 말씀을 여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계셨던 무덤 또는 통상적으로 말해지는 무덤은 영적 의미로 볼 때 부활 또는 거듭남을 의미한다. ‘천사’라는 단어가 말씀에서 언급될 때 신성한 진리를 뜻하여 한 천사가 주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던 것이다. ‘머리맡에 있던 천사’란

처음에 해당되는 것들 속에 든 신성한 진리를 뜻하여 이 두 가지 모두 주님께게서 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성한 진리가 받아들여질 때 거듭남이 그 결과로 있게 되는바, 그것에 부활이 존재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종려주일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2) 군중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3) 군중들은 주님이 무엇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가?
- 4) 군중들이 주님이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심을 발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5) 주님은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십자가에서 내려진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모셔졌는가?
- 7) 누가 주님의 시신을 모셨는가?
- 8) 누가 일요일 이른 아침 처음 무덤에 갔는가?
- 9) 그 여자는 왜 무덤에 갔는가?
- 10)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 11)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3)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그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15)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 16) 이 때 어떤 제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 17) 토마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18)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19) 그 후 주님은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0)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매장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23) 수의(고운 베)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나귀 2) 호산나 3) 로마를 정복함 4) 그분을 거절했다 5) 금요일 6) 새 무덤에 안장되었다.
7) 아라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8) 막달라 여자 마리아 9) 향을 시신에 바르려고 10) 돌이
굴려져 있었다 11) 수의 12) 두 천사 13) 이름을 부르심으로 14) 아직 올라 가지지 않았기 때문
15) 닫혀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다 16) 토마 17) “나는 내 눈으로 보고..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18) 다시 나타나심으로 19)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다 21)
부활 22) 하느님에 관한 거짓 사상 23) 주님에 관한 제자들의 사상

37

여자와 용

머리말

본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묘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먼저 기억해 두면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2.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 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올라 갔고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느님께서 천 이백 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7. 그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9.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숙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10. 그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11.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13.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삼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15.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했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 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 냈습니다. 17.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

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 가 18. 바닷가에 섰습니다.

교리 요약

- * 물질주의라는 이 큰 용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무시해버리게 하는 묘책을 수단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 곁에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
- * 만일 우리가 일상 생활을 우리의 참 교리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용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 * 새 교회조차도 “믿음 만의 교리”를 수단으로 살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해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장차 그들이 기독교회를 기초하게 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가르침을 진실로 지키기를 당부하셨다. 사도들은 이 부분에 충실했지만, 그들이 기초한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계시록 3장과 4장을 통해 1 세기도 지나기 전에 거짓 가르침이나 생활 속의 악들이 기독교 모임들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은 사도 요한이 교령이 되었을 때 주어졌던 것들이다. 이 책은 첫 기독교에 발생하게 될 일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계시록은 첫 기독교 역시 먼 옛날의 교회들이 그들 속의 이기심이나 세상욕으로 인해 전복되었듯이 그렇게 전복될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이 교회가 어떻게 심판되며 종말을 초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새교회가 일어서게 된다는 예언적인 환상들에 관한 것이다.

본문의 환상은 천국에 있는 새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이 새교회가 지상에서 부딪치게 될 반대자들에 관해 알려준다. 성경의 전반에서 교회란 여자와 신부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등 주님의 배우자로서 묘사된다. 특별히 본문의 여자는 새교회를 표현한다. 성경 전반에서 이기적인 사랑,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뱀으로 묘사된다. 이는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뱀이 이브를 설득시켜 주님께 불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큰 붉은 뱀이란 위의 뱀과 같은 “늪은 뱀”으로, 전 세계를 악마 또는 사탄으로 현혹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본문의 예언은 1757년에 말씀의 봉인을 떼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지상에 새교회를 건립하시게 된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건립된 새교회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게 된 것을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까닭은 약 이 천 년 전 주님의 강림이 성취되었을 당시 그분의 오심을 믿었던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접하게 되면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강요당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그 지식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늙은 뱀은 큰 붉은 뱀으로 되어 진리를 파괴하고자 미묘한 논쟁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시시각각 시험하려고 우리와 늘 붙어 다닌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며 계명에 충실해온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과 천사들에 의해 보호되었다. 그래서 본문의 여자와 같이 용의 접근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적 이해라는 날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548항: “전쟁이란 영적인 전쟁 곧 거짓된 것과 진리와의 전쟁을 의미할 뿐 그 외의 다른 전쟁은 천국에 있지 않다. 미카엘이란 한 개인으로서의 대 천사를 의미하지 않으며, 가브리엘 또는 라파엘도 이와 같다. 이들은 천국에서의 성직임무를 의미한다. ‘미카엘’로 의미된 임무란 말씀으로부터 확증을 얻게하는 것이다. 성직임무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심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과 같다는 것, 인간이 십계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선행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확증한 이들에 의해 수행된다.”

질문 정리

- 1) 요한은 누구인가?
- 2)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어디로 유배되었는가?
- 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4) 그에게 주어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5) 계시록 전체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 6) 첫 기독교회에 자라난 악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7)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8) 이 환상의 일부를 설명해보자.
- 9) 여인과 그 아이를 위협하기 위해 무엇이 나타났는가?
- 10)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 아기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12) 누가 용에 대항하여 싸웠는가?
- 13) 여인은 어떻게 구해졌는가?
- 14) 여인과 그 아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용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가장 사랑 받은 사도 2) 파트모스섬 3) 환상 4) 영화 되신 주님
- 5) 채림 6) 봉인이 떼어짐으로 7) 태양을 입은 여자
- 8) 달을 밟고, 열 두 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9) 용
- 10) 일곱 머리, 열 빨, 일곱 왕관 11) 천국으로 들려올라 갔다 12) 미가엘과 천사들
- 13)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갔다
- 14) 새교회와 그 교회속의 진리 15) “믿음만으로”의 교리

두 짐승이 정복되다

머리말

본문은 제 12장과 연관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의 악과 이해성 속의 거짓이 우리 안과 세상에서 발달하려는 교회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13장: 1.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머리는 일곱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씌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3.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 갔습니다. 4.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5.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일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6.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옥설을 퍼부었습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9.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10. “잡혀 갈 사람은 잡혀 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 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12.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16.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육백 육십육입니다.

19장: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 이라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 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18.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19.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교리 요점

- * ‘용’과 ‘짐승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애쓴다.
- * 말씀이 열린 이유는 위와 같은 설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 *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펼쳐진 열려진 말씀이란 “잔치”에 초대되어져 있다.

해설

한 마리는 바다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마리 짐승의 환상은 지상의 사람들이 용이 외쳐대는 거짓 추론에 솔깃하게 될 때 있게 될 결과에 관한 묘사이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느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이기심이 매우 강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추기는 추론을 검증 없이 쉽게 받아들기 일쑤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은 첫 짐승과 같이 자신의 깊은 속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의 총명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켜준다. 이런 모습은 3절에서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다”라고 묘사되지만, 그 치명상은 다 나왔다. 우리는 어떤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한 변명을 곧잘 찾아낸다. “모든 이가 그렇게 하는데 난들 어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일 것이다.

우리의 또 다른 나쁜 경향성은 위선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부유해 보이는 동네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도중에 건물이 웅장한 교회를 발견하여 그곳에 참석하며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가 자기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교회 활동이라는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의 심정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성경구절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면서 성경의 어느 구절을 타인을 질책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선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 인용하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1절의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는 둘째 짐승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흰말을 타신 분 곧 주님만이 이 짐승들을 쳐부술 수 있으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진리로 그분의 지도하에서 자신에게 오는 위와 같은 시험들에 당당히 맞서게 되면, 우리는 자신 속의 숨겨진 이기심을 진실로 인식하여 그것에 붙어 다니는 거짓 추론을 무찌를 수 있게 된다.

주님은 말씀의 속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써 천국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분의 “잔치”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거치되 허우적거릴 필요 없이 주님의 진리가 비취주는 환한 빛 속에서 삶의 여정을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 12장의 여인처럼 인간의 견해라는 짙은 안개 너머로 우리를 들어 올려 줄 날개를 받아 더 높고 더욱 순수한 영의 세계를 갖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571항: “ ‘그 머리마다 하느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부정하고 교회의 교리가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의 총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을 의미한다. 일곱 머리들이란 거짓에서 오는 정신착란을 뜻한다. 이러한 정신

착란자가 모독하며 그렇게 말하는 때란 교회의 교리를 말씀에 근원하지 않고 인간의 총명에서 끌어낼 때 그리고 주님의 인성 안에 그분의 신성이 있음을 부정할 때이다. 먼저 주님의 인성 안에 계신 신성을 부정하는 모독을 살펴보자. 이렇게 부정하는 까닭은 위의 사항이 전 기독교에서 받은 믿음, 즉 아타나시우스 회의에서 발표한 조항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말씀에서 끌어내지 않고 인간 총명이 모독한다고 한 까닭은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있고 교회의 내적상태 역시 말씀을 이해함에 따라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만의 교리 곧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서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된다는 교리는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바울이 표현한 구절이 잘못 이해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로마서 3:28). 교리의 모든 거짓은 인간 총명 외의 다른 곳에 근원되어 있지 않다. 말씀이 넓게 가르치고 있는 사항은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 이웃 외에 사랑해야 할 명확한 대상이 있을까? 어느 누가 주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모를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모를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함 속에서 주님 스스로 인간과 결합하고, 인간 스스로 주님과 결합된다. 즉, 이 사랑 속에서 주님과 인간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제 12장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2) 무엇이 여자를 위협했는가?
- 3) 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4)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5)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 6) 누가 용과 싸웠는가?
- 7) 누가 승리했는가?
- 8) 여자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9) 본문에서 무엇이 먼저 등장되는가?
- 10)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의 머리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2)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았는가?

- 13) 이 환상에서 용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 14)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 15) 둘째 본문에서 천국이 열리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6) 승마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7) 승마자는 어떤 세 가지로 불리는가?
- 18) 누가 흰말을 타신 분을 뒤따르고 있는가?
- 19) 어떤 잔치가 주어졌는가?
- 20) 짐승은 어떻게 되었는가?
- 21) 두 짐승은 각기 무엇을 그리는가?
- 22) 숫자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3) 하늘이 열림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태양을 입은 여자 2) 용 3) 일곱 머리, 열 뿔
- 4) 하나님에게 들려 올라갔다 5) 광야 6) 미가엘 7) 미가엘
- 8) 독수리 날개 9)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 10) 짐승 11)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12) 상처받았다
- 13)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다 14)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 15) 666 16) 흰말 17) 불꽃같은 눈, 많은 왕관, 피에 젖은 옷
- 18) 신의와 진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왕 19) 군대들
- 20) 불못에 던져졌다
- 21) 첫 짐승 -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기적인 바램
둘째 짐승 - 겉으로 순진한 듯 나타나는 이기적인 바램
- 22)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됨 23)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밝혀짐

요한 환상의 끝

머리말

성경을 마감하는 구절에 다음의 간단명료한 몇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 여부가 자유로운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총명이나 의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적인 행복에의 길이다. 다섯째,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행해져야만 하며 사후에는 어떤 것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으로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혹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8-21절

22장: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하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돌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뺀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미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인을 떼심으로써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 두셨다.
- *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성장과 거듭남을 위해 필수적이듯이, 세상에 조직된 새교회는 내적 교회의 존재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해설

성경을 마감 짓는 본문에는 말씀속의 모든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인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규명하시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하신다.

그분이 한 처음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속의 하늘과 땅, 즉 우리의 천국적인 부분과 지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상적인 부분은 발달시키려고 하면서도 천국적인 부분의 발달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때가 허다하다. 주님은 본문 11절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천국적인 부분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사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서의 앞부분에서 에덴의 동산과 그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큰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동산은 뱀이라는 감각적 욕구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에서 자야로 관심을 돌리기 이전의 지상에 존재했던 태고 교회 사람들의 아름다운 상태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우리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에서 멀어져가는 과정과 주님이 자비로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타락한 그들의 자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국 주님은 말씀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눈앞에서 신성한 진리를 살아 내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들 속에 있는 악을 인식하여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그분의 오심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뀌게 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마감 짓는 장의 첫 구절에서 또 다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의 강과 나무는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 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된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봉인을 떼셔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 주셨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이란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가 발달되어 이뤄지는 새교회를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본문에서 약속된 주님의 재림은 1757년경에 거행되었다고 간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서 취해진 새교회 또는 새 예루살렘교회인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는 이들에 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기적인 자들의 추론을 신성한 진리에 더하거나 그 진리를 제거하려는 자들에 속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을 통해서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기(계명)를 빼는(행하는) 복 받은 사람에 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954항: “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라고 함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빛이 되셨던 주님 그리고 새 빛으로 거룩한 예루살렘인 그분의 새교회 앞에 드러나실 분을 의미한다.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란 세상에 태어나셨던 신성한 인간으로서 계신 주님 자신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그분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 그리고 ‘다윗의 가지’라고 불린다(예레미야 23:15). 또한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말해진다. ‘빛나는 샛별’이란 거기에 빛이셨다는 것과 새 빛으로 오실 것, 즉 거룩한 예루살렘인 그분의 새교회 앞에서 새 빛으로 일어나실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데에서 그분은 ‘빛나는 별’ 과 ‘빛’이라고 불린다. 별에 대해서는 민수기 24장 17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4-12절, 3장 19절, 21장, 4장, 5장, 12장 35-36절, 마태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2장 30-32절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과 49장 6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그분은 그분으로부터인 새예루살렘, 즉 새교회 앞에 나타날 빛으로부터 ‘샛별’이라고 불리신다. 그 이유는 ‘별’이란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의미하고, 이 빛의 본질은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이다. ‘아침’은 그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곧 새교회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 2) 그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3)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누가 생명나무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 5) 주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 6)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신가?
- 7) 그분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사항은 무엇인가?

- 8)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9)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 10) 강과 생명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친숙한가?

질문의 답

- 1) 자기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2) 하느님께 경배하라
- 3) 처음과 마지막 4)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 5) 예수 그리스도
- 6) 나에게 오라 7)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떼어버리는 것
- 8) 거룩한 성 9)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선택을 하기 때문
- 10) 강 - 말씀의 진리, 생명나무 - 신성한 사랑 11) 축도문에서 사용되기 때문

40

새교회 날(2)

머리말

본과는 매해 6월 셋째 주일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새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주로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1-12절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올라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짓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미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교리 요약

* 오늘날 전 세계는 새교회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데, 새교회인들은 그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해설

앞서 우리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거룩한 성에 대해서 공부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거룩한 성에 관하여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청년기는 마치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이고 영원한 고향을 추구하면서 구름과 불기둥에 의해 인도된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막연히 이해하면서 그분을 인정한 상태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의 거주지는 이동이 용이한 천막으로서 여기저기로 오가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곧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두 기둥들의 인도를 성실히 따라 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우리의 성전을 갖게 되어 단단한 기반이 있는 예배장소와 평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후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식이 발전될 때마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는 그때마다 의문의 답이 말씀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여 얻게 된 해답으로 곤란을 겪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예배하는 쪽으로 향하기도 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해답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해답을 추구한 자들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이마누엘 스웨덴뵐(1688-1722)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는데, 이는 삶의 진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첫 기독교회는 이러한 본보기에 기초된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그분이 다시 육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해두셨다. 그리고 그분은 “권능과 영광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에 오신다.”라고 예언하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처럼 예언하신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늘의 구름”이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상의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을 때 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한 때 그 해가 구름을 뚫고 내리 비칠 때 그 햇볕에 고무되듯이 내적 의미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문단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부분이다.

주님은 18세기 중반에 인류가 과거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더라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해할 만큼 세상의 학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었음을 보셨다. 또한 인류가 과학이나

철학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가는 것도 보셨다. 그래서 주님은 스웨덴북의 눈을 여심으로써 영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영의 세계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내향의 삶을 뜻하고, 우리의 경우 지상에 속한 육체를 한쪽에 놔두게 될 때 볼 수 있게 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세계이기도 하다. 주님은 스웨덴북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말씀의 내적 의미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써서 출판하도록 그를 훈육하셨다. 스웨덴북은 스스로를 일컬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저서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단원에 대한 열쇠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저서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름 너머의 빛나는 해를 보게 해준다.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스웨덴북이 주님께서서 1770년 6월 19일 열 두 사도들을 영계 전체에 파견하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그 사도들은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음, 그분의 나라가 세세토록 존재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되신다. 만약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간다면, 우리 역시 영원히 그 도성에 살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 종교 제 791항」: “주님은 이 일이 끝난 후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던 열 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날 그들을 영계 전체에 파견하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고, 이 왕국은 다니엘서 7장 13-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예언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임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도 선포되었다(계시록 19:9). 이 일은 1770년 6월 19일에 거행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다음 말씀에 대한 의미이다. 즉,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마태복음 24:31)

질문 정리

- 1)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가?
- 2) 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르는가?

- 3)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 4) 누가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가?
- 5) 성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6) 성벽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7) 단어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 8) 왜 세상은 마지막 계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가?
- 9) 세상의 지식과 주님에 관한 지식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가?
- 10) 주님은 재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 11) 왜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는가?
- 12) 주님이 악을 허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큰 시험은 무엇인가?
- 14) 새교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 날 2) 순정기독교 791항 참조 3)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 4) 사도 요한 5) 교리 6) 말씀 글자 7) 평화의 장소
- 8)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9) 주님에 관한 지식
- 10)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심으로
- 11) 주님과 이웃사랑은 반드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므로
- 12)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시기 위해 필요하므로 13) 자기 총명의 자랑
- 14) 말씀과 스웨덴북의 저서를 수단으로 이웃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도움